ISSN 1727—9062

차 례

주체111(2022)년 3월호

표지: 경축의 환희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가장 성대히 경축하는 끝없는 영광과 기쁨이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축포발사가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조국인민들의 기쁨과 환희의 분출인양 련속 터져오르는 축포들의 장쾌한 불야경은 수도의 밤하늘가를 이채롭게 장식한다.

본사기자 김성철

제391호

주체78(1989)년 8월 창간

편집: 최은혁, 서철남

ㄱ-228027

화성지구의 천지개벽으로 수도건설의 대번영기를 더욱 빛내이자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 주체111(2022)년 2월 12일

동지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용기와 자신심에 넘쳐 우리 수도에 또 하나의 변혁의 시대를 상징하는 인민의 새 거리를 일떠세우기 위한 뜻깊은 착공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나는 먼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성대한 착공으로써 장엄한 2022년도 우리 투쟁의 서막을 열고있는 수도건설자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정부를 대표하여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건설부문앞에 나선 가장 주되는 과업의 하나인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은 지난해에 시발을 뗀 우리 당의 숙원사업인 평양시 살림집전망목표수행의 두번째 공사인 동시에 이 지구에 새로운 현대적도시구획을 일떠세우기 위한 첫단계의 건설입니다.

우리 당과 정부가 승인한 수도건설전망계획에 따라 태양의 성지가까이에 위치하고 9. 9절거리와 잇닿아있는 화성지구에는 앞으로 3년안팎에 수만세대의 살림집과 공공건물, 봉사시설들이 들어앉은 웅장한 거리들이 일떠서고 새 주민행정구역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방대한 공사를 포함하여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목표가 성과적으로 달성되면 우리 당은 인민들과 한 제일 중요한 약속을 지키게 되며 우리 수도시민들의 살림집문제가 철저히

해결되게 될것입니다.

지금이 그 어느때보다 조건과 환경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당과 정부가 해마다 수도에 살림집을 1만세대씩 건설하는 사업을 완강히 내미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지들!

이같이 중요하고 방대한 화성지구 살림집건설을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의 두번째 해에 계획대로 시작할수 있게 된것은 전적으로 수도건설에 떨쳐나선 건설자들과 인민군장병들이 수고를 많이 한 덕분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지난해 송신, 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은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렵고 난관이 겹쌓인 간고한 조건에서 진행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자들은 불굴의 투지, 완강한 노력으로 모든 애로를 타개하면서 계획된 공사과제를 과감히 추진하였으며 1년도 안되는 사이에 평양의 동쪽관문에 초고층, 고층

살림집들이 늘어선 훌륭한 거리를 일떠세웠습니다.

결과 이제 다가오는 태양절에는 수많은 수도시민들이 새 거리의 새집들에 입사하는 기쁜 모습을 볼수 있게 되였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는 이에 대하여 응당하게 평가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투쟁, 확실하게 이룩된 성과가 있었기에 우리 당중앙위원회는 다음단계의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용의주도하게 결심하고 포치할수 있었으며 오늘은 화성지구 살림집건설을 정식 선포하는 착공식을 가질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 당은 화성지구에서 전개되는 올해의 1만세대 살림집건설에서도 지난해와 같은 앙양된 투쟁열의와 공세적인 전진기상이 높이 발양되고 더 신심있고 더 의의있는 커다란 성과가 쟁취되리라는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건설자들은 기적의 힘을 지닌 로동당시대의 부흥과 발전의 새 력사를 만들어나가는 보람찬 창조자, 긍지높은 개척자들입니다.

나라의 주요건설단위 건설자들과 인민군장병들이 진출한 곳들에서 당의 인민적정책이 실현되여 해마다 수많은 인민들이 대대로 살게 될 보금자리들이 생겨나고 시대의 문명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창조물들이 솟아나고있습니다.

거창한 건설의 대격전이 벌어지는 과정에 동요와 무능이 극복되고 용기와 지혜가 발휘되며 락후와 침체가 타파되고 진보와 혁신이 일어나며 미래에로 나아가는 우리 국가와 인민의 힘이 더욱 강대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의 활기찬 전진과 발전이 엄연한 실물로 립증되고 이를 방해하던 모든것들, 주객관적도전들이 산산이 부서져 맥을 추지 못하게 되며 이는 그대로 적대세력들에게 내리는 철추로 되는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변화이고 혁명이며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혁명사업에 앞장선 주인공은 다름아닌 동지들, 건설자들입니다.

우리 건설자들이야말로 오늘에 살면서 래일을 그려내고 그 아름다운 미래를 앞당겨오는 선구자들이며 우리 시대의 미더운 선봉투사들입니다.

나는 우리 당이 내놓은 옳바른 건설정책과 건설자들의 창조적노력에 의하여 우리의 건설이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철저히 복무하는 사회주의적성격,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의 본태를 견지하면서 보다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분야로 변화발전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올해 화성지구 살림집건설에서는 송신, 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의 경험과 교훈을 잘 살려 대건설전투를 더욱 강력하고 주도세밀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대건설전투는 국가의 인적, 물적, 기술적잠재력이 집중되여 새로운 실체를 이루어내는 거창한 창조활동인것만큼 그것이 완벽한 성공작에로 이어지는가, 이어지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작전과 지휘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건설지휘부에서는 현존건설력량과 건재생산 및 수송능력, 계절조건을 정확히 타산한 기초우에서 설계와 시공의 전 과정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박력있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건설자재보장을 확고히 선행시키고 시공단위들과 감독기관의 역할을 높여 공사의 질과 속도를 다같이 철저히 보장하는데로 모든 사업을 지향시켜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건설을 작전지휘함에 있어서 당면한 공사일정을 맞추는데만 치중하는 근시안적인 관점을 일소하고 건설부문을 전망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적인 구상과 방안을 착실하게 실행해나가는것입니다.

수도건설은 물론 국가적인 대건설은 한두해하고 그만둘 일이 아니며 전체 인민이 좋은 집에서 살고 나라의 면모가 일신된 다음에도 새로운 높이에서 계속되여야 할 장기적이며 끊임없는 사업입니다.

때문에 건설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질량적으로 강화하는 사업과 건재의 다양화와 국산화를 실현하는 사업, 건설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고 선진적인 건설공법과 건축기술을 확대도입하는것을 비롯하여 우리 건설부문의 발전과 관련되는 사업들이 잠시라도 미루어지거나 정체되여서는 안됩니다.

건설의 전 과정에 이와 같은 과제들이 단계별로 공사계획과 설계, 건재보장과 시공기준에 하나하나 반영되고 집행되고 총화되여야 하며 혁신적인 발기와 합리적인 창의고안, 대담한 시도들이 적극 제기되고 장려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하여 한해한해 1만세대씩 새 거리가 늘어날 때마다 수도의 면모, 국가의 모습이 달라질뿐 아니라 우리의 건설력량이 더욱 장성강화되여야 하며 건설방식에서도 새롭게 전진하고 발전하는것이 있어야 합니다.

총적으로 살림집건설자체를 원만히 진행하는 동시에 우리 건설부문을 현대적수준에 올려세우는 사업이 병행되여 앞으로 더 방대하고 무거운 공사과제를 해제낄수 있게 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건설에 림하는 매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높은 열의와 책임감, 진심의 노력을 건설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고있습니다.

우리가 전개하는 사회주의건설장들에 항상 힘찬 구호가 나붙고 붉은기가 휘날리며 진군가가 높이 울리는것은 바로 그때문입니다.

누구나 숭고한 리상과 아름다운 희망에 끝없이 고무되게 하고 자기의 열성과 노력이 집단의 큰 힘이 되는 영예와 보람을 간직하게 하며 서로의 긍정과 우점에 더욱 격려되게 하는 참신하고 격동적인 정치사업이야말로 평범한 근로자들을 혁신과 위훈의 창조자로 성장하게 하고 그 어떤 조건에서도 기적을 불러오는 사회주의특유의 전진동력입니다.

모든 건설자들이 날로 새로와지는 우리 시대의 행복상과 발전상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나간다는 사명감과 기쁨에 충만되도록, 자신들의 힘찬 로력투쟁으로써 보다 문명한 앞날을 당겨온다는 자부심에 뿌듯하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서로 따라앞서고 따라배우는 집단적인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 애국의 열정을 더욱 분출시킴으로써 위대한 세대의 불굴의 강인성과 진함없는 창조정신이 깃든, 인민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사회주의번화가를 바로 이 화성지구에 보란듯이 일떠세워야 하겠습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의 대건설전선은 여기 수도의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뿐 아니라 전국적판도를 포괄하고있습니다.

대야금기지들과 화학공업기지들에서, 새로운 동력기지건설장들과 간석지건설장들에서 그리고 검덕지구와 련포지구, 전국의 농촌들에서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건설전투들이 대대적으로 준비되고 벌어지고있습니다.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강력히 견인하게 될 이 모든 건설대상들중에서도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은 제일 앞서나가야 할 기본전구입니다.

당의 건설정책을 완벽하게 철저히 집행하는 데서와 앙양된 기세드높이 백열전을 벌리는데서 응당 화성지구에 전개된 건설부대들이 기치를 들고 모든 건설전구들의 본보기가 되여야 합니다.

나는 여기에 참가한 모든 건설자들과 인민군장병들이 인민의 새 거리를 높이 떠올리는 남다른 영광과 긍지를 안고 배가된 지혜와 열정, 투지로써 화성지구건설을 계획된 기일안에 훌륭히 완공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모두다 우리식 사회주의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향하여,

우리의 평양을 위하여,

천지개벽된 화성지구의 새집들에 우리 부모형제, 자식들이 들어설 기쁨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아갑시다.

* * *

함남도인민들을 위한 련포온실농장건설에서 인민군대의 전투적기질을 높이 떨치라

련포온실농장건설착공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 주체111(2022)년 2월 18일

동지들!

오늘 우리는 인민을 위한 위대한 창조의 려정에서 또 한차례 긍지높고 보람있는 시각을 맞이하였습니다.

며칠전 수도시민들의 살림집문제해결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2022년도 수도 1만세대 건설을 시작한데 이어 오늘은 함흥시와 함경남도인민들의 생활에 많은 보탬을 주게 될 대규모온실농장건설에 착공하게 된데 대하여 우리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는 대단히 기쁘고 영예로운 일로 간주하고있습니다.

나는 먼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할 마음을 안고 우리 당과 국가의 최중대건설정책과제의 성과적실행을 위해 여기 련포전선에 집결한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일군들에게 전투적경례를 드립니다.

동지들!

나라의 중요한 공업도시이고 과학도시인 함흥시와 함경남도인민들의 남새보장문제를 언제나 중대사항으로 관심해온 우리 당중앙은 여러해전부터 이곳에 현대적인 온실농장을 건설할것을 구상하고 계획적으로 추진시켜왔습니다.

우리 당중앙은 동부전선의 중요군사기지를 나라의 경제와 과학기술발전에서 큰 몫을 맡아 수고가 많은 함흥시의 로동계급과 과학자들, 함경남도인민들을 위해 복무하는 현대적인 남새생산기지로 전변시키기로 결심하고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련포온실농장건설을 올해의 가장 중요한 건설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건설부지와 농장건설방향을 최종적으로 확정, 제시하고 강력한 건설지휘부를 조직하였으며 본격적인 건설준비를 추진시켜 오늘은 이렇게 뜻깊은 착공식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당중앙의 구상에 따라 진행되는 련포온실농장건설은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는 현대적인 농장, 당의 온실농장건설정책실현의 또 하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중요

한 창조사업입니다.

우리 나라의 자연기후적조건에서 인민들에게 사철 푸르싱싱한 남새를 풍족히 보장하자면 온실을 많이 건설하고 남새생산의 현대화, 집약화, 공업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대보다 남새농사가 잘되지 않는 함경북도에서부터 대규모온실농장건설을 시작하였으며 그를 통해 귀중한 경험도 쌓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진행하게 될 련포온실농장건설은 함북도에서 시작된 대규모온실농장건설사업이 새로운 단계에서 대대적으로 실행되도록 추동하게 하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련포온실농장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크고 현대적인 온실농장으로서 2년전에 준공한 중평남새온실농장에 비해 규모와 생산능력이 두배에 달하고 남새생산에 필요한 영양공급과 환경관리, 작업공정의 자동화측면에서도 훨씬 발전된 기술과 설비들로 장비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새롭고 다양한 형식의 살림집 1,000여세대를 건설하고 학교와 문화회관, 종합봉사시설을 비롯한 모든 공공건물들도 특색있게 일떠세워 우리 시대의 문명이 응축된 웅근 하나의 농장지구를 새로 형성하게 됩니다.

련포온실농장을 수만t의 생산능력을 가진 대규모남새생산기지로 건설하는 동시에 선진적인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실물교육농장으로, 우리식 농촌문명창조의 새로운 거점으로, 명실공히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장으로 건설하며 이를 기준으로, 봉화로 하여 나라의 전반적농촌발전을 더욱 강력하고 확신성있게 추진하자는것이 당중앙의 구상입니다.

아직은 바다바람만이 세찬 이곳에 머지않아 사람들이 리상으로만, 미래형으로만 여겨오던 현대온실농장을 눈앞의 현실로 펼쳐놓게 되면 함흥시민들과 함경남도인민들은 물론 온 나라 인민들에게 더욱 커다란 신심과 고무적 힘을 안겨주게 될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농장건설을 통채로 맡아 수행하게 된것은 우리 군대장병들의 커다란 영광으로 됩니다.

이번에 당중앙이 련포온실농장을 건설할데 대한 임무를 군장병들에게 맡기기로 결심하면서 중시한것은 동지들이 이미 현대적인 온실농장을 건설해본 귀중한 경험을 가지고있으며 특히는 그 건설을 통해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과 깨끗한 군인의 량심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동지들이 부모형제를 위하는 심정으로 성실한 땀과 지성을 바쳐 중평남새온실농장을 훌륭히 건설하였기에 지금 청진시와 함경북도인민들이 그 덕을 보고있으며 생활상 제일 큰 애로의 하나였던 남새문제가 많이 풀렸다고 기뻐하고있습니다.

그와 같은 기쁨을 이번에는 함흥시와 함경남도인민들에게 동지들이 또다시 안겨주어야 합니다.

동지들은 여기 온실농장건설에로 부른 당의 의도와 기대를 심장깊이 새기고 혁명군대의 전투적기질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올해 당창건기념일까지 련포온실농장을 훌륭히 완공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창건기념일까지 이제 230여일동안에 온실농장을 완공하자면 중평지구건설때와도 다른 비상한 각오와 잡도리를 가지고 맹렬한 건설전투를 전개해야 하며 어제날의 기준과 건설방식을 또다시 대담하게 혁신하면서 말그대로 새로운 련포창조정신, 련포불바람을 일으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군대의 절대적우월성이고 불패의 힘의 원천인 군인대중의 정신력을 고조시키고 중폭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언제나 앞세우며 공사조직과 지휘를 군대맛이 나게 치밀하고 박력있게 진행하여 온 건설장이 전투적기백과 새로운 기적창조로 들끓게 하여야 합니다.

장병들이 건설에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도 협동을 강화하고 좋은 경험과 앞선 시공기술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건설자재를 극력 절약하고 공사장주변관리도 잘하여 우리 시대의 새로운 건설문화가 인민군대에 의해 또다시 창조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지들의 작전전투지역은 달라졌지만 그 어떤 전략무기보다도 더 강한 우리의 군민대단결을 더욱 공고한것으로 억세게 다지기 위한 최전방에 분명히 섰음을 똑바로 자각하고 인민들이 즐거운 마음을 안고 기다리는 온실농장을 하루빨리 완공하는데 전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늘 강조하는 문제이지만 온실농장건설에서 질을 무조건적으로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지들은 지난 시기 중평남새온실농장을 비롯한 여러 중요대상들을 손색없이 일떠세운 것처럼 이번에도 자기의 친부모형제들이 일하고 살게 될 건물을 짓는다는 마음가짐으로 공사의 모든 공정과 세부적인 요소들에까지 지극한 정성과 섬세한 시공기술을 고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련포온실농장을 기능상으로나 건축미학적으로뿐 아니라 질보장측면에서도 완벽한 만점짜리 건축물로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안겨주어야 합니다.

련포온실농장건설에 함경남도에서도 적극 합세하여야 합니다.

인민군대가 온실농장건설을 도맡아 진행한다고 해도 앞으로 그 덕을 보게 될 주인은 어디까지나 함경남도인것만큼 도가 건설에 힘껏 기여하는것은 응당한 일로 됩니다.

함경남도에서는 군인건설자들이 공사를 지장없이 내밀수 있게 골재도 충분히 보장해주고 해안가의 지대적특성에 맞게 방풍림을 조성하는것을 비롯하여 온실농장건설이 힘있게 추진되도록 각방으로 원호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건설하는 온실농장의 현대화수준이 높은것만큼 기술일군들을 잘 준비시키는것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함경남도당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들에서는 온실농장 관리일군들과 기술자, 종업원들을 잘 꾸리고 기술적으로 원만히 준비시키면서 남새종자와 영농기재를 비롯한 경영물자들을 공사완공에 앞세워 일식으로 갖추어주어 래년부터는 이곳에서 대량생산한 남새를 함흥시민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당중앙은 이번에 건설지휘에서도 본보기적인 모범이 창조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건설지휘부와 현장지휘조, 각 분파들의 사업체계, 지휘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일군들이 사업을 예견성있게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온실농장건설이 당에서 정해준 시간표와 기준에 따라 드팀없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지들!

지금 우리 인민군대의 정예부대들이 정렬해있는 미더운 모습그대로 이제 몇개월후에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온실바다, 우리 인민들을 위한 보배농장이 규모있게 펼쳐지고 이 련포지구가 완전히 개변될것입니다.

우리모두 인민들의 집집마다에 피여날 밝은 웃음을 그려보며, 그래서 더 부강해질 조국의 광명한 래일을 내다보며 힘을 내여 인민을 위한 창조물을 하루빨리 일떠세웁시다.

나는 영웅한 인민군장병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혁명군대의 전투적기질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완전무결한 현대적인 온실농장을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주라는 당중앙의 명령을 빛나게 집행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한 우리 군대의 헌신적투쟁행로에 영광이 있으라!

* * *

새로운 건설혁명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문명발전을 선도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2차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

주체111(2022)년 2월 8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여 뜻깊은 올해에 조국청사에 영광스러운 한페지를 아로새길 혁명적열의로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이 들끓고있는 속에 제2차 건설부문일군대강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온 나라를 또 한번 몰라보게 변모시킬 새로운 대건설시대가 펼쳐지는 때에 창조와 변혁의 기본전선에서 활약하는 건설부문 일군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년간의 건설사업성과와 경험, 결함과 교훈들을 분석총화하고 우리 당의 건축사상과 건설정책으로 재무장하는것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의의있는 일입니다.

나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전면적발전기를 열어나가는 투쟁에서 한단계 더 올라선 주체건축의 발전상과 위용을 과시할 드높은 열의를 안고 이번 대강습에 참가한 건설부문 일군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또한 당의 부름따라 문명부강한 강국에로 향한 대건설전역들에서 우리 국가의 힘과 기상을 떨치며 로동당시대의 건설신화를 창조하고있는 전국의 모든 건설자들과 인민군군인들에게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사상초유의 어려운 조건에서 최대의 분발력을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현 단계의 투쟁에 있어서 건설부문의 위치와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설부문이 모든 전선의 앞장에서 시대의 문명을 선도하며 힘차게 내달려야 인민들의 혁명기세와 투쟁열의가 끊임없이 고조되고 우리식 사회주의가 활력에 넘쳐 전진하며 위대한 강국의 래일이 앞당겨지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 당은 이번 대강습을 매우 중시하고있으며 강습이 주체건축의 새로운 비약과 발전을 위한 전환적계기가 될것을 기대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건설력사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제1차 건설부문일군대강습은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리념을 건설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의 대번영기를 안아오는데서 주요한 리정표로 되였습니다.

대강습을 계기로 건설부문 일군들의 사고와 실천에서 혁신적변화가 일어나고 건축설계와 시공수준이 몰라보게 발전했습니다. 지난날의 경직되고 도식화된 틀에서 벗어나 창조적이고 독특한 양상의 건축물들을 마음먹은대로 설계할수 있는 경험과 토대가 축적되였으며 시공력량 이 장성하고 기술기능수준도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대건설의 병기창인 건재공업부문의 물질기술토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실행되고 마감건재의 국산화사업에서도 일정한 전진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는 속에 우리의 주체건축, 건설부문은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전통,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건축창조사업이 새로운 경지에서 실현된것은 주체건축의 본도와 사명을 깊이 자각한 건설부문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뜨거운 충성과 헌신이 안아온 가장 귀중한 성과입니다.

제1차 건설부문일군대강습이후 우리는 해마다 옹근 하나의 현대적인 거리와 맞먹는 큰 규모의 건설대상들을 완공하고 도시건설과 농촌건설, 산업건설과 문화시설건설분야에서 주체건축의 새로운 기준, 본보기로 될수 있는 훌륭한 건축물들을 창조하였습니다. 우리 설계가들과 건설자들의 슬기와 재능이 비낀 삼지연시소재지와 농촌마을들, 려명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 중평남새온실농장, 과학기술전당과 양덕온천문화휴양지와 같은 창조물들은 로동당시대 문명의 새 모습을 당당히 자부할수 있게 하는 주체건축의 대걸작들입니다.

지난 한해에만도 우리는 송신, 송화지구에 1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일떠세우고 검덕지구 5 000세대살림집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하여 5개년계획에 반영된 살림집건설목표를 점령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으며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를 특색있게 건설하면서 새로운 건축형식을 창조하고 전국에 일반화할수 있는 훌륭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당에서 인민들과 약속한 평양종합병원건설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대상공사와 단천발전소건설, 김화군지방공업공장개건현대화공사를 비롯하여 전국의 건설전역들에서 혁혁한 성과들이 달성되였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긍지감을 가지고 총화하게 되는 성과는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에게 있어서 그 정치적, 전략적의의가 대단히 큰 삼지연시꾸리기를 승리적으로 결속한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당의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수령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려는 전체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고 지방건설의 본보기를 창조하였으며 위대한 장군님탄생 80돐에 드리는 충성의 선물을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당과 수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의 마음을 안고 삼지연시꾸리기에 자기의 힘과 지혜, 물심량면의 아낌없는 지성을 바쳐준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건설자들, 인민군군인들에게 충심으로부터의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의 사회주의대건설은 국가와 인민앞에 그 어느때보다 엄혹한 도전과 장애가 가로놓인 상황에서, 국력강화의 대업과 여러 분야의 혁신적변혁들을 추진하는 긴장한 투쟁속에서 잠시의 중단도 없이 그것도 전례없이 방대하고 통이 크게, 독특하면서도 현대적인 양상을 띠고 립체적으로 전개되였습니다. 이것은 난관앞에 주춤함이 없이 사회주의의 밝은 미래를 위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억센 신념과 비상한 창조정신, 드높은 애국적열정과 웅대한 목표실현에로 용진하는 우리 국가의 발전상과 잠재력에 대한 힘있는 실증으

로 됩니다.

우리는 최근년간에 이룩한 건설성과와 한 단계 도약한 건축술에 대하여 응당한 자긍심을 가지고 총화할수 있으며 이것은 주체건축 발전의 밝은 앞날을 락관하게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내세운 원대한 리상과 포부에 걸맞는 주체건축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교훈으로 삼고 극복해야 할 결함과 편향들에 대하여서도 정확히 분석총화하고 반드시 고쳐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건설부문에는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결함들도 있고 보강해야 할 측면들도 적지 않습니다. 설계부문에서 모든 건축물들을 우리 인민의 미감과 정서를 반영하면서 비반복적으로 특색있게, 그 사명과 기능에 맞게 실용적으로 설계하지 못하는 결함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내장식설계와 가구설계, 원림설계는 아직 많이 뒤떨어져있습니다. 건설공법도 여전히 습식공법에만 치우치고있으며 건설단위와 대상별로 시공의 질보장에서 수준차이가 현격하고 마감건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을뿐아니라 건설작업의 기계화비중이 매우 낮은것도 우리 건축의 질적인 도약을 장애하는 주요인자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건설부문의 일군들이 우리 당의 건축리념과 건설정책, 우리식 사회주의의 발전에서 건설분야를 중시하는 당중앙의 의도를 깊이 감득하지 못하고 건설에서 세계를 앞서나갈수 있는 시야와 안목이 협소한것입니다.

건설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건설사업을 당에서 구상하고 의도하는대로 막힘없이 전개하고 추진할수 있을만큼 원만히 준비되여있지 못한것도 반드시 해결되여야 할 현안입니다.

당에서는 이번 대강습을 계기로 건설사업전반을 새롭게 혁신하여 주체건축을 세계적수준에서 또 한번 질적으로 비약시키자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건설의 새로운 도약기, 발전기를 감당하고 선도해나갈수 있는 총명하고 재능있는 설계집단이 있고 경험있는 건설일군들과 기능공들이 있으며 대건설을 뒤받침할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잠재력을 총발동하여 건설혁명을 새로운 단계에서 더욱 고조시킴으로써 사회주의건설사에 주체건축의 자랑스러운 페지들을 계속 써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 20~30년을 기한부로 온 나라 인민들의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개변시켜 우리 나라를 세계가 선망하는 사회주의리상국으로,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누리며 편안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회주의락원으로 건설할 거창한 설계도를 펼치였으며 건설부문은 이 목표를 현실로 전환시키는데서 최전선의 위치에 있습니다.

건설은 인민들로 하여금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와 우리 제도의 고마움을 페부로 느끼게 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창조의 기준, 아름다운 미래상을 직관적으로 인식시켜 새시대의 문명에로 인도하며 누구나 위대한 국가의 일원된 긍지와 더 좋은 래일에 대한 신심에 넘쳐 사회주의애국위업에 헌신하도록 고무하는 중요한 정치적사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건설혁명은 조국의 귀중한 재부를 창조하는 보람찬 사업인 동시에 사람들을 깨우치고 밝은 미래에로 이끄는 사상교양과정, 문화혁명과정으로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건설은 또한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전제이고 문명한 미래를 창조해나가는 백년지계의 애국사업입니다.

우리가 눈앞의 난관만을 생각하면서 건설에 힘을 넣지 않는다면 국가발전의 기초를 다질수 없고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줄수도 없습니다. 건설은 곧 진보이고 변혁이며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건설을 앞세우고 과감하게 밀고나감으로써만 경제의 지속적장성을 위한 새로운 능력을 마련하고 문화적진보의 거점들을 더 많이 꾸려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인민들이 반기는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설에서의 혁명적인 전환으로 극난한 시련기, 단련기를 용감히 넘어선 위대한 인민이 혁명의 새로운 고조기, 발전기에 어떤 리상과 포부를 가지고 앞길을 개척해나가고있는가를 세계앞에 실물로 보여주고 강국의 위상을 더욱 힘있게 떨쳐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앞을 내다보며 자력으로 창조해나가는 하나하나의 건축물들은 그대로 우리 인민과 후대들에게 안겨지는 복락의 터전이 되고 국가부흥의 든든한 밑천으로 되며 로동당시대 사람들의 고상한 사상감정과 창조적지혜의 높이를 후세에 전할 력사의 기념비로 될것입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이번 대강습을 통하여 건설을 중시하고 건설부문에서의 혁신적인 변화로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발전을 견인하려는 당중앙의 의도를 깊이 새기고 당의 건설정책을 환히 체득하며 앞으로의 건설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건설에서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극복방도는 무엇인가를 잘 알고 서로의 성과와 경험들을 공유하며 과감한 혁신과 발전에로 신심있게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현시기 건설사업에서 우리가 견지하여야 할 기본방향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대상건설에 우선적인 힘을 넣으면서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건설과 국토건설을 동시에 밀고나가는것입니다.

사회의 진보와 부흥은 인민들의 문화생활수준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민들에게 더 좋은 살림집과 훌륭한 문화생활환경을 마련해주어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 사회주의본태를 더 잘 구현하고 사람들의 생활리듬과 생활습성, 생활방식에서의 긍정적인 변화, 정치의식과 문명수준의 향상을 주도하여야 합니다.

살림집문제는 우리 인민들이 제일 관심하는 문제이며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을 직접 페부로 느끼게 하는데서 일차적인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건설정책의 중핵은 우리 나라를 살림집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한 나라로 만들자는것입니다. 당대회에서 결정한대로 평양시에 5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반드시 일떠세우고 검덕지구에 2만 5 000세대의 특색있는 살림집들이 들어찬 산악협곡도시, 문명한 광산도시를 형성하는 동시에 도, 시, 군들에서도 년차별로 살림집건설을 대대적으로 밀고나가 5개년계획기간에 전국적범위에서 부족되는 주택문제를 기본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이 부러운것없이 마음껏 배우며 높은 지식문명을 습득하고 무병무탈할수 있게 훌륭한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진 현대적인 교육, 보건시설들을 많이 일떠세워 당의 사회주의문명국건설구상을 더 빨리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이미 이룩된 경험과 기준에 토대하여 각급 교육기관과 의료봉사시설, 의약품생산기지들을 현대적으로 꾸리는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문명의 실체를 마음껏 체험할수 있게 나라의 명산, 명소들에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잘 융합된 인민의 문화휴양지와 관광지들을 꾸리고 전국의 도시와 마을마다 특색있는 공원과 유원지들도 계속 조성하며 현대적인 봉사시설들도 더 잘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수도와 지방,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없애는것을 중요한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지방건설 특히 농촌건설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기 위하여 국가가 모든 시, 군들에 해마다 세멘트를 정상적으로 보장해주는것을 정책화, 법화하도록 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는 나라의 모든 농촌마을들을 우리식 사회주의의 맛이 나고 해당 지역의 특성이 뚜렷이 살아나게 건설할데 대한 전략적인 과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시, 군소재지들과 농촌마을들의 면모와 환경을 개변시키는 사업은 우리 인민들이 환호하고 문명한 사회건설을 추동하는 매우 보람있는 사업입니다. 당의 지방건설정책, 농촌건설정책에 철저히 립각하여 국가투자를 늘이며 도, 시, 군들에서는 모든 도소재지와 시, 군소재지, 농촌마을들을 사회주의리상도시, 리상촌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지방건설혁명, 농촌건설혁명의 봉화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과 국토건설에 힘을 넣어 경제발전의 새로운 기반을 부단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산업건설에서 우리가 달성하여야 할 목표는 생산공정만이 아니라 산업시설과 문화후생시설을 비롯한 모든 시설들을 현대적으로 신설, 개건하여 국가경제의 발전토대를 새롭게 구축하고 근로자들에게 보다 훌륭하고 선진적인 로동생활조건을 제공하는것입니다. 건물들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내용에서, 시설들의 운영과 경제적실리에서도 새시대의 맛이 나고 속살이 지게 하여야 합니다.

당면하여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대상과 금성뜨락또르공장개건현대화, 에네르기절약형제철로건설을 비롯한 국가적인 중요산업건설대상들에 력량을 집중하여 완공을 다그쳐야 합니다. 중평남새온실농장을 본보기로 현대적인 대규모남새온실농장들도 일떠세우고 시, 군의 량정사업소들과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발전에서 기초로 되는 철도와 항만, 발전소를 비롯한 경제하부구조건설에 힘을 넣으면서 해안방조제와 수리구조물공사, 강하천정리와 도로건설을 비롯한 국토건설사업을 꾸준히 내밀어 나라의 면모를 개변시키고 자연재해로부터 인민의 생명재산과 품들여 마련한 물질문화적재부들을 안전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해야 할 건설사업이 방대하고 힘은 들것이지만 국가발전의 탄탄대로, 인민생활향상의 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필수공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책임적으로 중단없이 밀고나가면 우리자신뿐 아니라 후대들도 그 덕을 단단히 보게 될것이며 멀지 않은 앞날에 우리 나라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리상국으로 변모될것입니다.

우리가 건설사업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기본요구는 첫째로, 건설사업에 대한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입니다.

앞에서도 강조하였지만 건설사업은 물질적재부를 창조하는 사업이기 전에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구현하고 사람들의 정신문화수준을 높이며 나라의 면모를 개변시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건설사업에 대한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건설이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인도하는 당의 정책적의도와 구상에 맞게 전개되여나갈수 있고 우리 시대에 창조하는 모든 건축물들에 주체적인 건축사상과 리념을 옳바로 구현해나갈수 있습니다.

건설의 작전으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마다에서 당중앙의 건설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함에 사색과 실천을 집중시키고 당의 건설정책을 유일한 지침으로, 절대적기준으로 하여 건설사업을 조직전개하여야 합니다. 건설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에 제때에 보고하고 결론에 따라 집행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무엇을 더 하고싶고 할수 있어도 오직 당에서 비준한 형성안대로만 건설하며 당의 결론도 받지 않고 건설을 진행하는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현상들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설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요구는 둘째로, 건축을 철저히 정치화, 정책화하는것입니다.

정치성을 떠난 우리의 건축은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건축에서 정치사상성을 도외시하고 건설을 실무화하면서 건축미학만능주의, 예술지상주의로 나가는것을 배격합니다. 건축의 정치화, 정책화는 주체건축발전에서 핵이고 종자입니다. 건축물에 정치적인 구호나 표어를 게시하는것을 비롯하여 건축에서 우리 당제일주의, 우리 사상제일주의, 우리 제도제일주의, 우리 민족제일주의가 직관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는것을 항구적인 방침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일떠세우는 모든 건축물들은 세상에 없는 우리 당과 국가특유의 주체적, 인민적성격과 국풍이 관통되고 인민의 지향과 감정, 위대한 강국의 존엄과 기백으로 충만된 생명력있는 건축물들로 되여야 합니다.

건설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요구는 셋째로, 로동당시대를 대표하고 상징할수 있는 새롭고 독특한 건축양식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것입니다.

건축양식은 해당 시대의 지향과 미학관, 문명수준과 국력의 높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로동당시대의 문명을 상징하는 건축의 모양새, 우리가 리상하는 건축예술의 면모가 집대성된 우리 식의 전형적인 건축양식을 창조하고 건설전반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식의 새로운 건축양식창조에서 중시하여야 할 문제는 건축의 모든 요소마다에서 민족적향취가 풍기고 시대정신이 맥박치며 혁신과 창조의 기상이 약동하게 하는것입니다. 다시말하여 우리의 고유한 멋과 특색을 살리면서 현대건축술의 제반 요구를 우리 식으로 구현해나가야 합니다.

건설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요구는 넷째로, 경제성과 실용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것입니다.

건설에는 방대한 인적, 물적자원이 소요되며 건설은 일단 진행하면 되돌릴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있습니다. 건설은 어떤 요구를 내세우고 얼마나 질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사회적진보를 강력하게 견인할수도 있고 반대로 저애할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건설은 국가의 전망적인 발전계획과 하나로 융합되여 과학적으로 타산되고 진행되여야 하며 건설총계획작성으로부터 건축물의 설계나 시공을 비롯한 건설의 전 과정에서 최량화, 최적화된 방안에 의거하여 경제성과 실용성이 보장되여야 합니다. 건설에서 실리의 원칙을 견지하고 세계적추세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원, 부지, 에네르기절약형건설을 적극 장려하며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 50년, 100년이 흘러도 경제력향상과 문명발전의 바탕이 되고 국가의 번영을 떠받드는 주추가 될수 있게 모든 면에서 완벽성을 기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건설사업의 기본방향과 기본요구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새로운 분발력으로 대건설시대의 혁명적고조를 위함에 총궐기하여야 합니다.

당의 의도대로 건설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자면 설계에서부터 진보와 변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당의 주체적건축미학사상과 인민의 리상이 응축된 훌륭한 건축물은 설계탁에서 먼저 태여나며 사회주의문명국에로 향한 우리의 큰걸음도 바로 설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당의 요구는 설계도면의 선 하나, 점 하나에도 로동당시대의 사상과 넋, 약동하는 기상이 반영되고 세계와 당당히 겨루는 높은 문명수준이 비끼게 하는것입니다. 이 요구를 구현해야 할 건축설계가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당의 사상과 리념, 인민의 지향에 부응하는 기발한 착상과 령감을 떠올리기 위해 모대기며 새것이 아니고서는 인정하지도 물러서지도 않는 완강한 기질입니다.

설계가들은 자신들이 창조하는 한장한장의 설계도면에 의하여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현실로 옮겨지고 아름다운 조국의 래일이 펼쳐진다는것을 명심하고 분초를 아껴 사색하고 탐구하며 분발하고 분투하여야 합니다.

건축설계에서 중심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지하고 독창성과 편리성을 살리며 실용화와 기능화를 보장하는것입니다.

당에서 계속 강조하는 문제이지만 주체성과 민족성은 건축의 생명이며 독창성과 편리성, 실용화와 기능화는 건축설계의 지침입니다. 설계부문에서는 우리당 건설정책의 요구대로 선편리성과 선미학성, 선하부구조의 원칙을 지키면서 모든 건축물들을 우리 인민의 정서와 미감, 우리 실정에 부합되게 또한 다양하고 특색이 있으면서도 용도에 맞게 설계하여 건축창조의 새 경지를 개척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립면은 곧 건축물의 얼굴이며 건축물의 매력은 립면에서부터 나타나야 합니다.

립면설계에서는 류사성과 반복을 금하고 모든 건축물이 다 개성이 살아나게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다시말하여 건물의 외형만 보고도 무슨 건물인지 한눈에 안겨올수 있게 골격구조적인 특색을 살리면서 조형예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립면형성에서 건축물의 사명과 용도, 특성이 집약적으로 반영된 독특한 종자를 착상하고 모든 부분과 세부요소들이 그에 철저히 복종되도록 하는데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특히 같은 사명과 용도의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산간지대, 해안지대, 벌방지대에 따라 해당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비반복적이고 단조롭지 않게, 주변환경과 어울리게

설계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은 외형도 멋있어야 하지만 그 내부가 실용적이고 편리하면서도 건축미학적으로 손색이 없어야 합니다.

내부형성에서 기본은 실용성과 편리성, 예술적조형화를 다같이 완벽하게 실현하는것입니다. 실용성과 편리성만 강조하면서 조형예술성을 홀시하여서도 안되고 조형화, 예술화에 치우치면서 실용성과 편리성을 놓쳐서도 안됩니다.

건물의 사명과 용도에 맞게 기능적요구를 충분히 구현하며 건축면적리용률을 최대한 높이고 편리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평면조직을 합리적으로 하는데 류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식의 새롭고 다양한 건축형성수법들도 적극 창조, 활용하여야 합니다.

건축에서 실내장식을 잘하는것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실내장식은 하나의 예술과 같습니다. 실내장식에서는 현대감을 내면서도 우리 구미에 맞게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병풍이나 그림을 비롯한 여러가지 장식구성요소들과 투각장식과 같은 장식수법들도 활용하고 용도에 맞는 다양한 가구와 비품을 구색이 맞게 배치하는 방법으로 실내장식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설계부문에서는 민족적인 건축형식을 널리 장려하는것을 비롯하여 건축물의 외부와 내부를 민족적특색이 살아나게 설계하는데 특별한 힘을 넣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형성안은 기술설계를 통하여 구체화되며 기술설계의 질에 따라 건설물의 질과 안전성, 기술공학적요구가 담보되게 됩니다.

기술설계에서는 과학성과 정확성, 합리성과 섬세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당에서 비준한 형성안과 기술과제서에 철저히 준하여 건설자재와 로력을 적게 들이면서도 건축물의 질과 안전성을 담보하며 현대적미감과 장식적효과가 잘 살아나게 하면서도 생활기능상요구와 기술공학적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수 있는 최량화, 최적화된 기술설계방안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건설설계예산작성에 품을 들여야 합니다. 설계예산작성에서 로력과 자재, 자금타산을 바로하지 않아 여유를 조성하거나 랑비를 초래하는것과 같은 현상들을 없애며 한공수의 로력과 한g의 세멘트, 한토막의 강재라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가구설계와 원림설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지금 가구설계수준이 높지 못하다보니 좋은 재료를 가지고도 가구를 투박하고 볼품이 없고 사용하기에도 불편하게 만들고있으며 그로하여 건물내부의 품위도 떨어뜨리고있습니다.

가구설계에서는 건축물의 성격과 내부공간의 구조에 어울리며 사람들의 기호에 맞으면서도 실용성을 보장하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가구설계에서 다양화와 조형화, 다기능화와 경량화를 중시하고 일체식으로부터 조립식으로 전환하며 모든 가구들을 그 용도에 맞게 설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구를 나무로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재료를 리용하여 가벼우면서도 보기 좋게 만드는것을 장려하며 가구색도 건축물의 내부공간색과 조화를 이루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현대건축에서 원림록화는 중요한 형성수단으로 작용하며 원림록화수준은 나라의 문명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로 됩니다.

원림록화도 역시 하나의 조형예술인것만큼 원림설계를 선행시키고 그에 준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원림설계를 주위환경과 지대적특성, 원림식물의 생태학적특징을 잘 고려하여 건물의 품위를 돋구면서도 자연경관이 살아나게, 조형예술적으로 특색있게 하여야 합니다. 원림설계에서 천편일률식을 경계하고 관상적효과가 좋은 나무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거나 잔디밭과 화단을 조화롭게 형성하기도 하며 인공산과 바위같은 요소들도 배합하여 자연미를 살리는 식으로 다양하게 하여야 합니다.

원림설계가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원림록화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며 세계적으로 널리 리용되는 방법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도 바로하여야 합니다.

설계부문에서 건설총계획작성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건설총계획은 50년, 100년이상 앞을 내다보면서 당의 의도에 맞게 그 리념부터 바로 정립하고 종자와 주제를 살리면서 해당 지역과 대상의 구체적조건과 환경, 발전방향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전망성있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건설총계획작성에서 중요한것은 해당 지역과 대상에 맞게 중심축을 바로 정하고 기능별로 구획을 명백히 가르며 매 구획별로 특색이 살아나게 건축군을 형성하는것입니다. 기복이 있고 평탄하지 못한 지형에는 자연기복을 리용하여 건물들을 배치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평탄한 지대에는 두부모처럼 구획을 갈라놓고 점잖은 건물들을 배치하는것이 좋습니다. 건축형성에 참가하는 매 건물들의 독특한 형식을 살리면서도 건물들사이의 예술적호상성과 호환성, 련결성이 원활하고 세련되게 하여야 합니다. 건설총계획작성에서 물공급, 오수처리, 전력공급, 정보통신망을 비롯한 기술시설망계획을 빈틈없이 하여 인민들이 사소한 불편도 없이 생활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맞게 록색건축, 지능건축을 비롯한 건축설계방안들을 탐구도입하여 건축기술의 선진성에서도 세계와 경쟁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항만과 철길, 도로와 다리건설을 비롯한 건설분야의 전반적인 설계수준을 다같이 세계적높이에 올려세우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합니다.

설계부문에서는 설계지도와 심의사업에서 주관주의,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과학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며 설계기관들사이의 분야별, 계통별 협동일치를 철저히 실현하여 건설의 작전단계에서부터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질은 곧 시공의 질입니다.

시공의 질보장에서는 건설자들의 시공수준을 높이는것이 선차입니다. 건설단위들에서는 건설자들이 그 어떤 시공과제도 손색없이 해낼수 있는 전문기능과 급수를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특히 마감시공을 잘할수 있는 기능공대렬을 늘이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기술학습과 기능전습, 기능공들의 경기같은것을 실속있게 조직하고 신입공들이 고급기능공들과 함께 일하면서 시공방법을 배우고 익힐수 있도록 시공력량편성을 합리적으로 하여 전반적인 기술기능수준을 빨리 높여야 합니다.

건설부문에서 시공의 질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앞선 질관리방법들을 받아들이며 시공의 질문제를 놓고서는 절대로 양보나 타협을 몰라야 합니다.

건설단위들에서 시공지도력량을 강력하게 꾸리고 시공을 건축공학적, 건축미학적요구에 맞게 하도록 옳바로 지도하는것과 함께 건설자들에게 설계와 시공기준, 공법상요구를 정확히 알려주고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며 작업총화도 공사의 질을 놓고 맵짜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릇된 습관과 경험주의에 포로되여 공법의 요구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단단히 문제를 세우고 시정시켜야 합니다.

건설부문에서는 언제까지 공사를 끝낸다고 하면서 돌격식으로 속도에만 치우치는 편향을 극복하고 선질후량의 원칙에서 건설물의 질보장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시공의 질과 속도는 선진적인 공법에 의하여 개선됩니다. 건설부문에서 선진적인 공법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새로운 혁신운동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건식공법을 적극 도입하고 우리 식의 색몰탈미장공법을 완성하는것을 비롯하여 자재절약형, 로력절약형공법에 대한 연구와 창안을 심화시키며 건설단위들에서도 우월하고 새로운 시공방법들을 끊임없이 탐구적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을 당이 의도하는 높이에서 마음먹은대로 중단없이 내밀자면 더 많은 건재가 요구됩니다.

새시대 건설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오늘 어디서나 요구하는것이 세멘트입니다. 지금 있는 세멘트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면서 능력확장공사를 병행하여 내밀며 생산조건이 유리한 지역들에 선진기술이 도입된 현대적인 세멘트공장들을 건설하여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세멘트고지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올해부터 시, 군들에 공급하게 된 세멘트

를 전량 무조건 생산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건재공업부문에서는 특히 마감건재를 자급자족하고 건재품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정책관철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설계로 우리 건설자들이 시공할뿐 아니라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기술로 만든 우리 식의 마감건재로 완성한 건축물이라야 주체건축을 상징한다고 당당히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원료자원으로 새로운 마감건재들을 개발하고 생산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틀어쥐고 내밀어야 합니다. 건재공업부문에서는 타일과 석재, 유리와 금속, 수지건재는 물론 보온재와 외장재, 방수재뿐아니라 벽지와 비닐레자, 벽판을 비롯하여 건설에 필요한 마감건재들을 국산화하기 위한 기준과 목표를 바로세우고 계획적으로 집행해나가야 합니다.

마감건재의 질을 개선하고 생산량을 늘이는것과 함께 원가를 낮추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선진적인 건재생산기술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건재품들을 품종과 재질, 크기와 형태, 색갈에 따라 표준화, 규격화하여야 합니다.

록색건재에 대한 연구도 심화시키고 여러가지 페기페설물을 건재생산에 유용하게 리용하기 위한 사업도 하여야 합니다.

국내의 건재공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건재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는것과 함께 건축설계단계에서부터 우리의 건재를 리용하는것을 장려하도록 하며 국내생산으로 수요를 보장할수 있는 마감건재에 대하여서는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하여야 합니다.

건설을 전문화, 집중화할데 대한 당정책적 요구를 일관성있게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건설의 전문화에서 기본은 그 어떤 대상과 제도 능히 감당할수 있는 전문건설력량을 그쯘하게 꾸리는것입니다. 물론 건설을 군중적으로도 하여야 하지만 원칙은 어디까지나 전문건설력량이 맡아하는것입니다.

전문건설기업소들이 제몫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주저앉은 건설기업소들을 정비보강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부족되는 로력을 보충해주며 현대적인 건설장비들도 갖추어주어야 합니다.

건설기업소들에서도 우만 쳐다볼것이 아니라 자체의 기술력량을 키우고 기능공대렬을 늘이며 건설장비와 기공구를 마련하는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건설은 철저히 건설계획에 따라 집중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건설을 집중화하자면 건설의 계획화부터 바로하여야 합니다.

국가적으로나 도, 시, 군들에서 당의 건설정책을 지침으로 삼고 현실적조건과 잠재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년차별 건설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무조건 집행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건설을 국가와 지역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전망목표와의 련관속에서 따져보면서 방향과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계획적으로 실행하여야 합니다.

건설계획이 수립된 다음에는 그에 맞게 설계와 시공력량, 자재와 자금을 순차성있게 집중적으로 보장하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박력있게 하여 제정된 기간내에 완공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타산이 없이 주관적욕망밑에 건설을 여기저기에 벌려놓고 무엇을 한다는 생색만 내거나 건설을 질질 끌면서 로력과 자재와 자금을 랑비하는 현상을 없애야 합니다.

건설의 과학화, 현대화에서 실질적인 개진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건설의 과학화를 대하는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관점과 립장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건설은 사람들의 생명안전과 생활보장, 사회경제발전과 직결된것만큼 기초를 파고 골조를 세우며 마감완성을 하는 전 공정이 과학성으로 일관되여야 한다는것을 항상 자각하여야 합니다. 건설에서 과학기술적요구를 무시하고 경험주의에 매달려 주먹치기로 하는 편향을 없애고 설계로부터 시공에 이르는 건설의 전 과정이 과학기술로 안받침되게 하며 특히 건설사업에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는데서 누구나 주인이 되여야 합니다.

건설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목표를 높이 세우고 주체적립장에서 선진적인 새 설계방법과 시공방법, 건재와 건설장비, 기공구들을 착상, 개발하기 위한 탐구전을 벌려야 합니다.

건설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연구토론회와 학술토론회를 통하여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새로운 착상안, 이룩한 경험들을 놓고 광범한 토론과 론쟁을 하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며 좋은 성과를 배우고 일반화하여야 합니다.

평양건축대학을 비롯한 건설부문 교육기관들에서 우리 당의 주체적건축사상과 현대건축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개선하여 우리 건축의 미래를 담당할 유능한 건설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합니다. 건설부문 대학졸업생들을 설계기관과 건설사업소를 비롯한 전공부문들에 배치하여 건설의 과학화실현에서 한몫씩 맡아하도록 하며 건설단위들에서도 인재를 찾아내고 품들여 키워 자기 단위사업발전의 기수로 육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보급체계와 수단들을 적극 활용하여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지식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건설부문에서 제일 취약한것이 현대화측면입니다. 국가적으로 대상건설이 제기될 때마다 인해전술에 매달리면서 숱한 인원을 동원시키는것이 일상사로 되다보니 항상 로력문제가 제기되고 다른 부문들의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있으며 건설의 속도와 질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자재도 적지 않게 랑비되고있습니다. 지식경제시대인 오늘에 와서까지 건설장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 건설작업을 손로동으로 하는것은 우리 건축의 발전면모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건설의 현대화를 더는 미룰수 없는 중대과업의 하나로 틀어쥐고 본격적으로 내밀어야 합니다.

설계수단들을 현대화하고 여러가지 앞선 설계방법과 설계지원프로그람들에 대한 정상적인 보급체계를 세워 그 어떤 높은 급의 설계도 최단기간에 질적으로 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나가야 합니다.

건설작업의 기계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현대적인 건설장비와 기공구를 생산할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살림집건설뿐 아니라 산업건설과 국토건설을 비롯하여 다양한 건설작업에 리용할수 있는 건설기계들을 개발생산하여야 합니다. 건설단위들이 간단한 설비와 기공구들을 자체로 만들어 쓰도록 하며 기공구전시회나 창안기재전시회같은것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좋은것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잘하여야 합니다.

건설감독사업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건설감독의 날이 무디여지면 당의 주체적건축사상과 건설정책이 정확히 관철될수 없고 조국과 인민의 리익이 침해당하게 되며 건축물의 안전성도 담보할수 없습니다.

건설감독기관들은 당정책적요구와 국가의 건설법에 철저히 준하여 건설의 전 과정에 대한 감독통제를 당적원칙에서 강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건설물의 질문제에 대하여 당과 국가와 인민앞에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그 누구의 눈치도, 얼굴도 보지 말고 오직 국가가 정한 감독규정대로만 사업하여야 합니다.

건설감독기관들에서는 어떤 대상과 단위이든 규정대로 건설허가를 받은 조건에서만 건설을 진행하도록 하며 설계에서 설계공학적요구를 똑바로 지켰는가, 시공에서 설계에 따르는 건축공학적, 미학적요구를 만족시켰는가 하는것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합니다. 모든 건설대상들에 대하여 준공검사의 문턱을 높이고 검사에서 합격된 조건에서만 리용하도록 하는 규률과 질서를 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건설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소속과 리유에 관계없이 즉시에 문제를 세우고 투쟁하여 어떤 경우에도 위법행위가 발붙일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지방건설 특히 농촌건설에 대하여 다시한번 강조하려고 합니다.

우리 당이 마음먹고 반드시 실현하자고 하는 지방건설혁명, 농촌건설혁명은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거창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농촌의 묵

은 때를 벗겨내고 사회주의문명이 꽃피는 현대적인 농촌을 일떠세우기 위한 일대 변혁이며 결코 한두해사이에 끝낼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과단성있게 내밀어 지방이 변하는 새시대를 창조하고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기 위한 매우 책임적인 사업입니다.

우리 당의 지방건설구상을 현실로 전환시키는데서 지방의 건축설계와 시공력량을 꾸리는것이 급선무로 나섭니다. 당의 조치에 따라 전국의 모든 도, 시, 군들에서 지방건설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하여야 하는것만큼 중앙의 설계력량과 건설력량의 도움만 바라고서는 언제가도 당의 지방건설정책을 관철할수 없습니다.

지방건설에서 선각자의 역할을 할 설계력량을 그쯘하게 꾸리고 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이번 건설부문일군대강습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바로 지방의 건축설계력량을 강화하여 수도와 지방의 건축설계를 다같이 발전시키자는데도 있습니다.

우리 당의 요구는 지방건설을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색이 살아나게 하라는것입니다. 지방별로 자연지리적조건과 경제발전환경이 서로 다르고 력사적으로 내려오는 풍속에도 차이가 있는것만큼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살리자면 자연지리적특징뿐 아니라 자기의 고유한 경제적조건과 세태풍속까지 잘 알고 그것을 설계에 반영할수 있는 설계력량이 준비되여야 합니다.

지방설계기관들을 건축학적안목이 있고 재능이 있는 대상들로 잘 꾸리고 그들의 수준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지방설계일군들이 건설실천을 통하여 실무를 쌓고 중앙의 설계일군들과 함께 일하는 기회에도 많이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설계가들이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다른 나라의 선진적인 건축자료들과 접촉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미술에 소질이 있는 대상들을 비롯하여 전망성이 있는 대상들을 건설부문 대학들에 보내여 자기 지방의 설계력량후비로 잘 키워야 합니다.

지방의 시공력량을 강화하여 그 어떤 건축물도 자체의 힘으로 질적으로 시공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이미 강조한대로 지방들에서는 시, 군건설려단들을 꾸리는 사업을 끝내고 기술기능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도, 시, 군들에서는 전문건설부대나 돌격대에서 단련되고 높은 기능을 소유한 대상들을 모체로 하고 그들이 기능을 전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능공대렬을 확대하면서 실력있는 건설부대를 육성하여야 합니다.

지방건설력량을 꾸리는데서 도, 시, 군당위원회들이 기본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당에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많은 량의 세멘트를 뚝 떼여 농촌건설에 돌리도록 하였는데 자기 지방의 100년미래를 내다보면서 건설을 전망성있게 질적으로 하자면 무엇보다 자체의 건설력량이 든든하여야 합니다. 도,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지방건설력량 특히 설계력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자기 지역을 특색있게 개발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며 자원과 재부를 마련하는 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지방들에서 마감건재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자기 지방의 자원으로 질좋은 마감건재를 개발리용하여 특색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년례적으로 진행되는 각 도건재전시회를 실속있게 조직하고 총화평가를 잘하여 이 사업이 마감건재의 국산화를 추동하고 나라의 건재공업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의 의도에 맞게 지방건설, 농촌건설과 관련한 계획도 농촌살림집건설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현실성있게 세우고 무조건 집행하는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건설부문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건설부문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이 부여한 중대한 사명과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오늘의 건설혁명에서 주력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합니다.

건설부문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당의 건설정책에 정통하고 최신건설과학기술과 막힘없는 건설기능을 습득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당에서 언제 어떤 건설과업이든 마음놓고 맡길수 있게 준비되여야 합니다.

누구나 애국심의 높이는 건설물의 질에서 표현된다는것을 명심하고 벽돌 한장을 쌓아도 깨끗한 량심과 진정, 기술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설비와 기공구 하나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하고 건설자재를 극력 절약하며 무슨 일이나 알뜰하고 깐지게 하는것을 체질화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건설혁명에서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떨쳐야 합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국가방위의 중임을 떠맡아 수행하는 초긴장속에서도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놓는 거창한 투쟁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주체건축의 본보기로 세상에 자랑할만한 기념비적창조물들과 대건설전역들마다에는 당의 명령지시에 언제나 충실한 우리 인민군대의 애국적헌신과 창조적지혜와 재능이 깃들어있습니다. 우리 당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친 인민군군인들의 영웅적위훈과 숭고한 헌신을 언제나 잊지 않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위대한 로동당시대를 빛내인 우리 군대의 참모습을 두고두고 자랑할것입니다.

군인건설자들은 지난 시기에 그러하였던것처럼 새로운 건설혁명의 앞장에서 기치를 들고 당이 맡겨주는 그 어떤 대상과제도 당에서 정해준 기간에 당에서 바라는 높이에서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우리 인민군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합니다.

건설부문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인민군군인들의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과 알뜰하고 깐진 건설교육자적일본새, 기백있고 락천적인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건설장들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며 하나하나의 건축물들을 우리식 사회주의문명을 상징할수 있게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이 새로운 건설혁명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 책무를 원만히 감당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건설자들속에 전후 빈터우에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우시고 주체건축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로동당시대 건설의 대번영기를 안아온 우리 당의 위대성과 령도업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에 품을 넣어 당과 수령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을 배양시키며 그들이 맡은 임무와 직업에 대한 긍지를 안고 새로운 건설혁명에 분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우리 당의 주체적건축사상과 건설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철저히 구현하도록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당의 구상을 건설실천으로 받들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건설현장들에 강력한 선전선동력량을 전개하고 직관선전과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 대중의 정신력을 더욱 고조시키며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일으켜 건설장마다 새로운 기적창조로 끓어번지게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우리 당이 제일 아끼는 건설자들의 생명안전에 첫째가는 주의를 돌리고 로동안전이 100% 담보되지 않으면 누구도 건설을 하지 못하도록 당적으로 강하게 통제하고 그에 대하여 실제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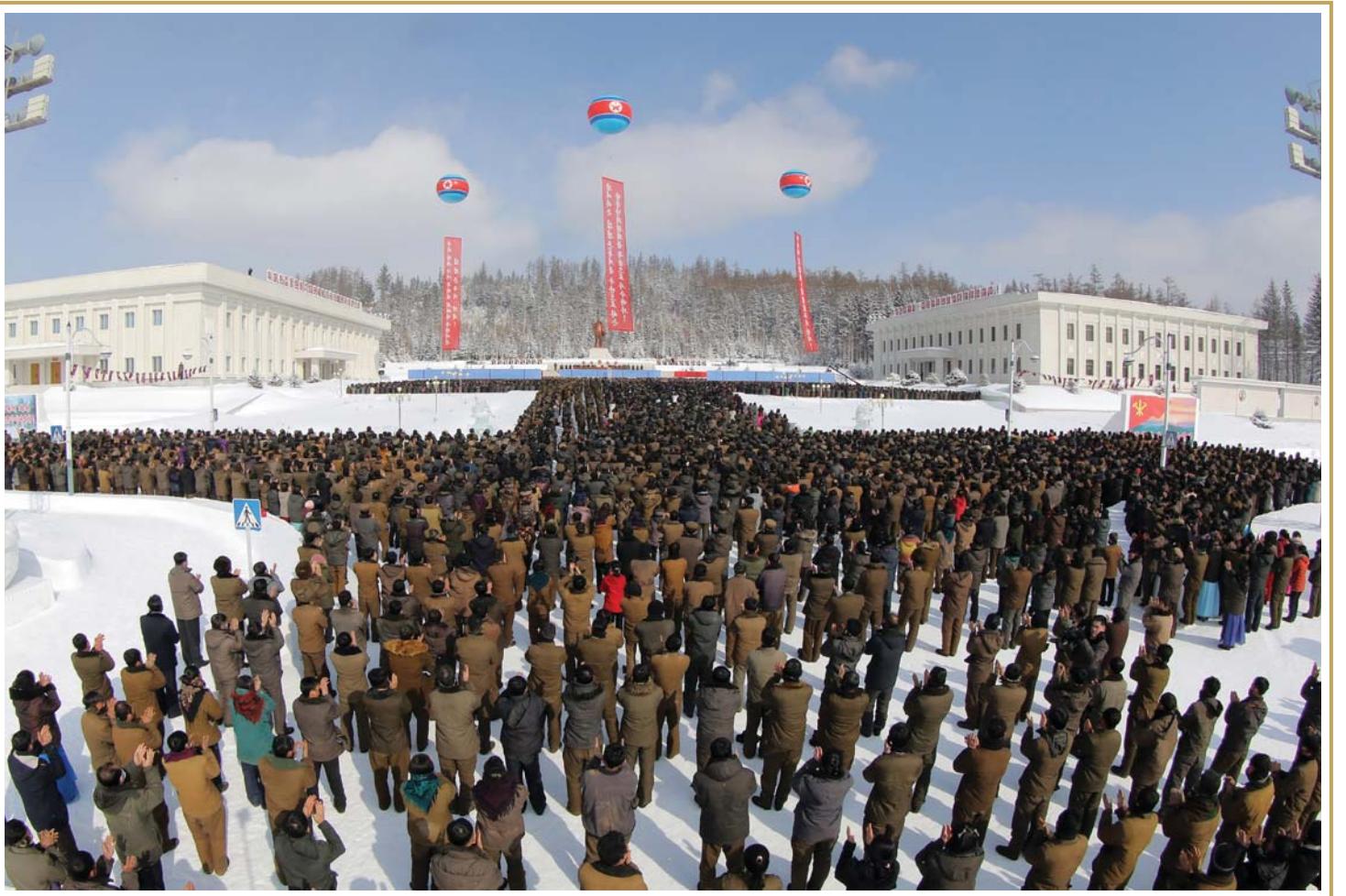
당조직들은 로동부하가 큰 건설자들에게 훌륭한 후방조건과 충분한 휴식조건을 보장해주고 공사장에 나가있는 건설자들이 마음쓰지 않도록 그들의 가정살림도 따뜻이 보살펴주어야 합니다.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사상을 완벽하게 구현하여 인민들에게 부럼없는 생활을 마련해주고 주체건축의 면모를 새롭게 일신하는데서 건설부문 일군들이 맡고있는 임무는 대단히 중대하고 무겁습니다.

나는 건설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당의 웅대한 대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새로운 건설혁명의 전구마다에서 계속 자랑찬 위훈을 창조함으로써 우리식 사회주의의 문명발전을 힘차게 선도해나가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0돐경축 중앙보고대회 혁명의 성지 삼지연시에서 성대히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탄생 80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2월 15일 혁명의 성지 삼지연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앞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고대회에 참석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함께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거룩한 영상이시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원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동지가 보고대회에 참가하였다.

이밖에도 보고대회에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 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 사회안전군 장병들과 량강도와 삼지연시안의 일군들, 근로자들, 216사단 지휘관, 돌격대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일환동지가 보고《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를 하였다.

보고자는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에로 힘차게 나아가는 력사적진군길에서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을 맞이한 온 나라 전체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존함을 혁명의 붉은기로 높이 들고 그이의 혁명유산을 도약대로 하여 받들어올린 반만년민족사의 가장 긍지스러운 시대를 안아보면서 조선의 2월이 간직하고있는 심원한 무게와 의의에 대하여 감격스럽게 새겨안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동서고금에 없는 비범한 탄생과 남다른 성장으로부터 시작된 절세위인의 고귀한 혁명생애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우리 인민에게 자존의 넋을 심어주시고 천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강국건설의 제일가는 밑천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보고자는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만이 조선혁명을 힘있게 향도할수 있다는것을 신념으로 체득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시대의 지도사상으로 정립체계화하시고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서 발전풍부화하는데 실로 많은 품을 들이시였다고 언급하였다.

계속하여 보고자는 창건을 선포한 때로부터 오늘까지 자기의 창당리념에 무한히 충실하여 근 80년이라는 최장의 집권력사를 빛내여온 조선로동당의 위상은 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당건설사상과 비범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하면서 그이께서는 우리 당을 그 혁명적성격과 본성에 맞게 수령의 당으로 건설하시여 조선로동당의 새로운 모습을 안아올리시였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주의 신념과 의지는 우리 국가건설과 활동의 철칙으로, 본령으로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유혹의 바람이 불어올수록 자립, 자위의 기둥을 더 억척같이 세우고 제재압살의 역풍이 몰아칠수록 사회주의의 기발을 더 세차게 휘날려왔다고 하면서 대국중심의 정치가 횡행하는 현 세계에서 제국주의의 항시적인 포위속에 있는 나라가 장장 수십성상 정치도 경제도 국방도 자기식으로 건설하며 조선식부국강병의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하여온것은 인류정치사의 기적이라고 긍지높이 토로하였다.

그러면서 보고자는 위대한 **김정일**시대에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명실상부한 자주국가로서 세계의 시각에 뚜렷이 새겨졌다고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조선의 영광을 누리에 떨치고 그 어떤 원쑤도 다치지 못하게 강대한 나라로 만드시려던 일생일대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고 말하였다.

보고에서 보고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열렬한 조국애, 민족애를 지니시고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통일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펼치시였으며 령활한 외교지략과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우리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시고 세계의 자주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고 언급하였다.

보고의 마감부문에서 보고자는 위대한 사상과 유산을 가진 위업은 필승불패이라고 하면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이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령도를 열화같은 충성심과 드팀없는 혁명실천으로 받들어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의 로고와 헌신의 고귀한 결정체인 사회주의조선을 온 세계가 우러르는 발전되고 문명한 부흥강국으로 일떠세워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투쟁하며 전진하여온 격동의 나날들을 무한한 긍지속에 돌이켜보면서 당중앙의 탁월한 령도가 있기에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은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간직하였다.

중앙보고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며 이 땅우에 자력으로 부강하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고 우리 혁명의 새로운 100년대를 승리와 영광의 년대로 빛내여갈 참가자들의 드팀없는 의지와 열정이 차넘치는 속에 진행되였다.

본사기자

2월의 강산에 울린 위인칭송의 노래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칭송하여 조국에서 다채로운 경축예술공연들이 진행되였다.

제1차 광명성절경축 인민예술축전이 지난 11일 수도 평양의 동평양대극장에서 개막된 후 련일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도종합공연과 성, 중앙기관예술소조종합공연형식으로 진행된 축전은 각 지역과 단위에서 선발된 40여개 단체에 2 900여명의 예술인들과 일군,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축전은 인민문화궁전, 동평양대극장, 봉화예술극장,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출연자들은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전 인민적인 칭송의 마음과 당의 령도따라 국가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긍지와 자부심을 높은 사상예술성과 세련된 음악형상으로 펼쳐보였다.

각 도의 출연자들은 다양한 종목들을 무대에 올려 자기 도에 새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의 만단사연을 뜨겁게 추억하였다.

자강도종합공연출연자들은 시이야기 《장군님과 자강도》, 실화이야기와 노래 《인민은 일편단심》에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초인간적인 의지와 정력으로 헤쳐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장정과 그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절절히 구가하였다.

함경남도의 예술인들은 대화시 《장군님과 주체비날론》, 남성독창과 합창 《아 그리워》 등의 종목들에서 한평생 사랑하는 인민을 마음속에 소중히 품어안으시고 애국헌신의 려정을 이어가신 위대한 어버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황해남도예술선전대원들과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예술소조원들은 당의 농촌건설강령 실현에서 농업도의 위력을 힘있게 떨쳐갈 농업근로자들의 앙양된 열의를 재담 《밀보리농사 좋다》, 제창이야기 《분조농사 꽃이 피네》에 담아 펼쳐보였다.

제1차 광명성절경축 인민예술축전 참가자들의 공연이 수도의 극장들에서 련일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0돐경축 대공연 《빛나라 정일봉》이 진행되였다.

황해북도, 강원도의 예술단체예술인들, 기동예술선동대원들, 예술소조원들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생애를 명곡에 담아 높이 칭송하였다.

새로운 시대정신의 창조자, 나라의 맏아들답게 당정책관철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려는 강원도인민들과 황철로동계급의 혁명적의지와 기개를 반영한 합창시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신념》, 이야기와 북제창 《주체철 제일이야》는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성, 중앙기관의 예술소조원들도 녀성합창 《고향집의 봇나무》, 녀성독창과 방창 《철령아리랑》, 녀성중창 《전선천리 야전차 달리네》 등에서 한평생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여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축전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다함없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인민의 일편단심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앞당겨오려는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을 춤과 노래로 펼쳐보인 주체조선특유의 전 인민적인 대정치예술축전이였다.

평양체육관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0돐경축 대공연 《빛나라 정일봉》이 진행되였다.

대공연에는 중앙예술단체들과 예술교육기관들의 창작가, 예술인들, 청소년학생들이 출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된데 이어 혼성2중창과 합창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 관현악과 합창 《빛나라 정일봉》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우리 인민이 심장으로 터친 기념비적송가들과 로동당찬가, 애국주의주제의 명곡들이 올랐다.

삼지연시에서 진행된 삼지연시와 216사단기동예술선동대 합동공연중에서

조국땅 방방곡곡에 새겨진 절세위인의 애국헌신의 자욱과 뜨거운 사랑의 체취가 어려오는 추억깊은 명곡들을 열창하며 출연자들은 **김일성**민족이 대대손손 복락을 누려갈 수 있는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려고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칭송의 노래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인 삼지연시에서도 뜨겁게 울려퍼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탄생 80돐경축 삼지연시와 216사단기동예술선동대 합동공연 《천지개벽된 삼지연에 울려퍼지는 2월의 노래》가 15일 삼지연시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합창 《경축합니다》로 시작된 공연무대에서 출연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넘쳐나는 시이야기 《백두밀영고향집과 삼지연시》, 남성독창 《장군님생각》 등을 감명깊게 펼쳐보였다.

이외에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탄생 80돐경축 직총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공연,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평양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들이 성황리에 진행되여 광명성절을 이채롭게 경축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중에서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평양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중에서

다채로운 행사들로 경축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장병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0돐에 즈음하여 백두산밀영고향집을 방문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해외동포들, 해외동포연고자들이 보내여온 꽃바구니의 일부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맞이하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더욱 차넘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0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최룡해동지, 김덕훈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무력기관 책임일군들,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이 백두산밀영고향집을 방문하였다.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린 그들은 걸출한 수령, 절세의 애국자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이였다.

그들은 백두의 억센 신념과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를 앞장에서 헤치시며 조국과 인민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불세출의 위인의 고귀한 한생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았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사회주의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로 천지개벽한 삼지연시의 백두산밀영동과 리명수동 살림집들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당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훌륭히 꾸려진 보금자리에서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는 주민들을 축하해주었다.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로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시여 사회주의발전의 가장 옳바른 길을 개척하시고 조국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치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열화같은 경모의 마음들이 만수대언덕으로 끝없이 굽이쳐흘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전국미술축전 《애국헌신의 한평생》 중앙미술전시회

중앙사진전람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당, 정권, 무력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사회안전군 부대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이 진정되였다.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근로자들과 인민군장병들이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군중들의 얼굴마다에는 한평생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드시고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갈 충성의 맹세가 어리여있었다.

산을 봐도, 들을 봐도 우리 장군님의 해빛과도 같은 그 영상 어려와 더욱 가슴젖어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으며 수많은 근로자들과 인민군장병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삼가 인사를 올리였다.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우표전시회

평양시산업미술전시회

국가도서전람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0돐을 맞으며 기념주화 발행

금화와 은화의 앞면 중심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시고 80개의 점을 원형으로 부각하였으며 웃부분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탄생 80돐》을, 아래부분의 량옆에 《1942》, 《2022》라는 년도를 새기고 목란꽃으로 장식하였다.

금화와 은화의 뒤면 중심에는 백두산밀영고향집과 정일봉을 형상하고 80개의 점을 원형으로 부각하였으며 웃부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이라는 글자를, 아래부분에 순도, 무게, 발행년도를 부각하였다.

금화의 규격은 직경 35㎜, 두께 2㎜이며 순금이다.

은화의 규격은 직경 40㎜, 두께 3㎜이며 순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탄생 80돐경축 보고대회 및 보고회가 각지에서 진행

중앙연구토론회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

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중앙연구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천리혜안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발전풍부화시키시여 자주시대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빛을 뿌리도록 하신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시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혁명의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 선군정치로 조국과 혁명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신 천하제일명장이시라고 칭송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여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대와 혁명, 조국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당과 인민이 백두에서 개척된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을 영원히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부동한 담보를 마련하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광명성절경축 국가도서전람회와 중앙사진전람회, 우표전시회, 산업미술전시회 등이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전시물들을 보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한평생을 다시한번 감회깊이 돌이켜보았으며 그이의 념원을 반드시 현실로 꽃피워갈 결의를 다지였다.

이밖에도 청년전위들의 맹세모임, 로동계급과 직맹원들

광명성절경축 태권도경기의 한 장면

광명성절경축 수중체조무용모범출연중에서

의 맹세모임,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 제25차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 수중체조무용모범출연, 제23차 전국청소년들의 충성의 축전, 제10차 광명성절료리기술경연, 웅변모임, 전국미술축전 《애국헌신의 한평생》 중앙미술전시회, 전국소묘, 서예축전,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축포발사 등이 진행되였다. 한편 백두산밀영고향집이 자리잡고있는 삼지연시를 비롯하여 각 도소재지들에서도 축포발사가 진행되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하며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길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본사기자

광명성절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축포발사 진행

해외동포단체들 광명성절 뜻깊게 경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0돐에 즈음하여 해외동포단체들이 경축행사들을 진행하였다.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재중동포단체들이 경축행사를 진행하였다.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재중조선인녀성협회, 총련합회 길림지구협회 길림시지부,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 황백하가족, 길림지구협회 전 부회장 홍영순가족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작품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과 대표부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도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재중조선인청년협회의 지부조직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경축보고회가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였다.

최수봉제1부의장은 보고에서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조선인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삼가 드리였다.

그는 모두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빛내이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애국애족의 한마음으로 더욱 굳게 뭉쳐 공화국공민의 본분을 다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삼가 올리는 축하편지가 전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보고회에 이어 광명성절경축 예술공연이 진행되였다.

한편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산하조직들에서는 조선기록영화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 6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혁명적당으로》를 시청하였다.

또한 위대성토론회, 경축모임과 경축연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로씨야고통련)도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경축행사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로씨야고통련청사의 중심홀에 정중히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작품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이어 경축모임이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김칠성 로씨야고통련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

그는 보고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쌓으신 업적으로 하여 지금도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고계신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은 조국의 자주권을 견결히 수호하시고 인민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탁월한 수령이시라고 그는 격찬하였다.

이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칭송하는 시 《**김정일**동지께 드린다》가 랑송되였다.

한편 로씨야고통련에서는 인터네트홈페지를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위대성선전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네트홈페지에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사진문헌을 정중히 모시고 《백두산과 **김정일**》, 《**김정일**정치, 성공의 비결》의 제목으로 특집하였다.

또한 조선기록영화 《위대한 승리의 해 2021년》과 편집물 《천출위인과 자주통일》, 새로 나온 화첩 《조로친선의 새 력사를 펼치시여》 등을 올리였다.

본사기자

녀성들에 대한 사랑과 정이 넘쳐나도록

3. 8국제부녀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조국인민은 나라의 륭성번영과 미래를 위하여,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모든 녀성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고있다.

가정에서는 웅심깊은 어머니, 미더운 안해가 되여 남편과 자식들을 훌륭히 내세워주고 일터에서는 이름난 로력혁신자, 미덕과 미풍의 주인공으로 온 나라에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을 더해주는 녀성들.

그들은 국가주권과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고있으며 영웅, 로력혁신자, 처녀어머니 등으로 사회와 집단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다.

돌이켜보면 해방전까지만 하여도 조선녀성들은 봉건적질곡에 시들어왔다. 나라를 빼앗긴 민족수난의 시기에는 그보다 더 큰 불행을 겪어야만 했다. 일제와 지주, 자본가들의 채찍밑에 노예로동을 강요당하며 물건처럼 팔리워다녀야 했고 성노예로 이국의 전장터에까지 끌려가 온갖 치욕을 당하여야만 했던것이 녀성들의 운명이였다.

그러한 녀성들의 운명에 종지부를 찍으신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녀의 평등을 보장하고 녀성들의 인격을 존중하는것을 해방직후 새 사회건설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34(1945)년 11월 18일 녀성들의 조직인 북조선민주녀성동맹을 창립해주시여 녀성들이 남자들과 같이 건국의 한쪽수레바퀴와 같은 역할을 담당수행할수 있게 해주시였다. 그후 주체35(1946)년 7월 30일 력사적인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시여 남자들과 꼭같은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싶어하던 조선녀성들의 세기적숙원을 풀어주시였다.

당시 인민정권은 그해 9월에 시행세칙을 채택하여 녀성들의 법적권리가 철저히 실현되도록 담보하였으며 주체37(1948)년에 채택된 공화국의 첫 헌법에도 남자와 동등한 녀성들의 권리를 규정하였다.

조선로동당과 정부는 사회주의건설의 전 과정에 가정을 돌보고 사회생활을 하는 녀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실현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녀성들을 온 세상에 보란듯이 내세워주시려 언제나 마음쓰시였다.

1980년대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제 현대적인 산원을 건설하면 우리가 녀성들을 위하여 할수 있는 또 하나의 큰일을 하는것으로 된다고 하신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평양산원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설계로 지어보자고 하시였다. 그리고 아무리 자금이 많이 들어도 여기에 갖추어놓는 설비와 기구, 비품들은 모두 최상급의 수준에서 일식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하시며 모든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어버이로 모시였기에 지난날 남의 집 부엌이나 외양간, 밭머리에서 몸을 풀어야만 했던 녀성들이 복을 받아안게 되였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조국의 륭성번영에 이바지하고있는 녀성들의 애국적소행을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신 그이의 열화같은 사랑과 믿음, 힘있는 격려속에 수많은 녀성들이 영웅으로, 로력혁신자로 성장하였다. 하여 시대의 녀성혁명가들과 모성애의 모범을 보여준 어머니들을 따라배우기 위한 불길이 타올랐고 온 사회에 녀성들을 존중하는 기풍이 더욱 차넘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녀성들에게 안겨주신 사랑과 믿음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녀성들을 위해 마련된 뜻깊은 공연을 관람하시며 온 나라 전체 녀성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주시고 녀성들과 아이들을 위한 최상급의 의료봉사기지들도 마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만나뵙는 행복속에 울고웃던 감나무중대의 녀성군인들이며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 참가자들과 조선인민군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 참가자들을 비롯한 이 나라의 평범한 녀성들모두가 한없이 넓고 따사로운 그이의 품에 안기였다.

주체104(2015)년 7월 도, 시,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시여 련못무궤도전차사업소 운전사 허명금에게 찬성투표하신 그이께서는 그의 두손을 잡으시고 뜨겁게 축하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녀성들이 젊음과 건강을 잃지 않고 외모도 마음씨도 다 아름다운 인간이 되도록 온갖 조건을 마련해주시였으며 녀성들의 건강을 위해 막대한 국가적투자로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일떠세워주시였다.

더욱 아름다워지는 녀성들의 모습은 태양과도 같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가꾸어오신 결실이다.

언제인가 외국의 한 녀성인사가 지방도시의 공장을 참관한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공장의 녀성지배인에게 이렇게 물었다.

《녀성이 어떻게 큰 공장의 지배인이 되였는가?》

녀성지배인으로부터 그는 우리 나라에서는 일할 나이가 된 녀성들이 희망에 따라 로동생활을 할수 있도록 그 권리가 법적으로 규제되여있다는것, 평범한 로동자의 딸인 자기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 공장에 입직하여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떼고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기능공양성과정과 대학과정을 마쳤으며 작업반장, 직장장을 거쳐 공장의 지배인으로까지 되였다는것, 시집을 간 후에는 보육교양조건이 갖추어진 공장의 탁아소, 유치원에 아이들을 맡기고 마음놓고 로동에 전념할수 있었다는것 등의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녀성로동자들이 깨끗하고 아늑하게 꾸려진 생산현장에서 현대적인 설비들을 다루며 즐겁게 일하는 모습이며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선진과학기술을 습득하고 원격교육을 받는 모습,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탁아소, 유치원들을 보면서 그는 지배인의 이야기가 꾸밈없는 진실임을 알수 있었다.

오늘 김정숙평양방직공장,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로동자합숙만 보아도 나라에서 녀성근로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이렇듯 절세위인들의 따사로운 품이 있어 조국의 녀성들은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자기의 삶을 꽃피우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연 옥

3.8국제부녀절을 축하합니다

사진 주체108(2019)년 이전시기 촬영

사회와 집단의 사랑과 존경속에

평양화력발전소 보온건재분공장
공장장 현옥주

제대군관인 현옥주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페설물로 단열벽돌을 만들기 위해 고심을 많이 하였다.

늘 생산현장에서 합리적인 배합비률과 성형압력을 찾기 위한 연구를 거듭하던 그는 마침내 단열벽돌의 공업화를 실현하게 되였다.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서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있는 그는 주체111(2022)년 새해를 맞으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였다.

주체83(1994)년 9월 직포공이 되여 처음 4대의 직기로부터 시작한 리명순은 점차 직기대수를 늘여 몇년후에는 두자리수의 직기를 담당하였다.

15년이 지나서부터 7개월만에 2년분계획을 완수한 그는 기대순회방법에 대하여 고심하면서 천생산량을 높일수 있는 합리적인 묘안도 찾아내였다.

자체로 기대를 수리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리명순이 지금까지 짠 천의 길이는 수백만m로서 공장직포공들가운데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직포공
공훈방직공 리명순

평양제4소학교 교원
김옥경

주체105(2016)년 새 교수방법을 창조한 김옥경은 소학교국어학습지원프로그람 《우리 글공부》를 비롯한 여러건의 학습지원프로그람을 개발하여 전국에 일반화하였다.

알기 쉬우며 통속적으로 진행되는 그의 교수방법에 의해 이 학교의 여러 학생들이 전국소학교부문 알아맞추기경연에서 우승하였으며 아동문학상수상자도 배출되였다.

학생들과 학부형들속에서 《우리 선생님》으로 불리우는 김옥경은 주체111(2022)년 새해를 맞으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였다.

지력개선을 첫 사업으로 틀어쥔 박영애는 포전별, 필지별로 정보당 20~50t의 유기질비료를 내는것을 목표로 세우고 이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전반적인 지력이 높아지는데 맞게 축산과 농산의 고리형생산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성형알모재배방법과 심층시비방법을 비롯한 앞선 영농방법들을 적극 도입하여 알곡소출을 늘이였다.

이 과정에 농장에서는 최근년간에만도 수백명의 다수확농민들이 배출되였으며 전국적인 다수확농장으로 되였다.

박영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이다.

평안남도 평원군 삼봉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박영애

4.25체육단 력기선수
공훈체육인 리성금

중학교때부터 력기를 시작한 리성금은 2014년 아시아청년 및 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세계청소년 새기록을 세우고 3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2015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 녀자 48kg급경기 추켜올리기에서 또다시 우승하였으며 주체110(2021)년에 진행된 국내경기들에서 혁혁한 성과를 이룩한것으로 하여 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의 첫자리에 올라있다.

리성금은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이다.

강동땅의 모성영웅

평양시 강동군 림경로동자구에서 사는 박은정(44살)녀성은 10명의 자식을 가진 어머니이다.

그는 주체88(1999)년에 조선인민군 군관인 리광철과 결혼한 후 지난해 7월까지 5남5녀의 자식을 낳아 키우고있다.

《한두명도 아닌 10명의 아이를 낳아 키우느라 수고가 많겠다.》라는 기자의 말에 박은정녀성은 《물론 힘들 때도 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한해두해 쑥쑥 커가는 모습을 볼 때면 어머니로서의 기쁨과 긍지가 생기군 한다. 예로부터 재산자랑말고 자식자랑하라는 말도 있지 않는가.》라고 말하였다.

자식 하나를 키우는데 오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돌본다는것이 헐치 않았다. 아침이면 학교와 유치원에 가는 자식들의 수업준비와 옷차림을 살펴야 했으며 저녁이면 닯어진 옷들을 손질하고 숙제도 봐주어야 했다. 박은정녀성의 손은 언제 한번 마를 날이 없었다.

그의 가정에 대한 국가적시책과 사회적관심은 크다.

나라에서는 박은정녀성에게 다산모치료권을 안겨주고 자식 많은 가정생활에 불편이 없게 보살펴주고있다.

이웃들과 군안의 정권기관 일군들은 그의 가정을 각근히 돌봐주고있으며 학교와 유치원에서는 교원들과 교양원들이 아이들에 대해 특별히 관심하고있다.

그와 그의 남편은 자식들을 키우기만 하는것이 아니라 나라의 역군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한 교양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자식은 겉을 낳지 속을 낳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어릴 때부터 교양에 품을 들여야 자식들이 옳바로 자랄수 있다.》라고 부모의 책임감에 대해 그들부부는 말하였다.

그들은 자식들이 웃사람들을 존경하고 동무들과 고향을 사랑하며 학교와 소년단조직생활에 성실하도록 하고있다.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어릴 때부터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그리고 전승세대들의 영웅적위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며 나라가 있고야 우리 가정도 있고 너희들의 앞날도 있다는 교양사업에 품을 들이고있다.

그러한 나날속에 맏이와 둘째, 셋째는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조국보위초소에 섰다.

어느때가 가장 기쁜가라는 기자의 물음에 박은정녀성은 《군복을 입고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는 대견한 자식들을 바래울 때면 어머니로서의 더없는 긍지와 행복을 느낀다.》라고 말하였다.

지난해 9월 박은정녀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본사기자 변진혁

반 향

복된 삶을 누리는 조선녀성들이 부럽다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는 서방의 녀성들에게 있어서 환상의 세계가 아닐수 없다. 조선이야말로 녀성들의 천국, 어머니들의 리상국이다.》

이것은 아일랜드의 한 녀성인사가 터친 격정의 웨침이다.

녀성들 누구나 다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고있는 사회주의조선의 현실은 국제사회의 경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이런 글을 올렸다.

오늘날 행성의 곳곳에서 녀성들의 존엄과 권리를 참혹하게 무시하는 행위들이 련이어 벌어지고있다.

그러나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인 조선에서는 녀성들이 사회적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받고있다. 국가와 사회의 혜택속에 궁지에 넘쳐 사는 녀성들이 바로 조선녀성들이다.

로씨야의 인터네트잡지 《렘취취》, 인터네트홈페지들인 《빠뜨리오띄 모스크바》,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나라를 위한 길에서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며 뜨거운 인정미로 가정과 사회의 화목, 단란한 정서를 더해주는 조선녀성들의 모습은 참으로 매혹적이다, 그들은 조국번영에 자신과 가정의 행복이 있다는것을 신조로 간직하고 가사보다 국사를 우선시하며 더 좋은 래일을 앞당겨오고있다고 전하였다.

베네수엘라 주체사상에 관한 철학연구소조 위원장은 조선녀성들은 산전산후휴가제, 국가부담에 의한 정휴양제를 비롯하여 막대한 혜택을 받고있다, 그들은 사회적시책속에서 살림집걱정, 자녀들을 공부시킬 걱정을 모르고 가정의 꽃, 나라의 꽃으로 활짝 피여나고있다고 말하였다.

조선에서는 세쌍둥이, 네쌍둥이를 낳은 녀성들이 국가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고있으며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녀성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내세워줄뿐 아니라 그들에게 모성영웅의 칭호까지 안겨주고있다고 하면서 인디아신문 《월즈 미러》,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인터네트홈페지는 우리 녀성들에게 베풀어지는 당과 국가의 혜택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앙골라녀성조직 국제비서는 당과 정부의 관심속에 조선녀성들은 복된 삶을 누리고있다고 부러움을 토로하였으며 국제민주녀성련맹 위원장은 지난날 온갖 천대와 멸시의 대상으로 버림받던 조선녀성들은 오늘 혁명과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랑스럽고 힘있는 존재로 되고있다고 찬양하였다.

네팔의 인터네트잡지 《네팔투데이》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어떤 사회제도에서 사는가에 따라 녀성들의 지위와 권리가 서로 다르게 규정되고 실현된다.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녀성들이 착취와 무권리, 분쟁과 범죄의 희생물로 되고있지만 조선에서는 녀성들의 평등권과 권리가 법적으로 담보되고있다.

녀성의 인격을 존중하는것이 하나의 사회적풍조로, 미덕으로 되고있을뿐 아니라 사회주의헌법과 녀성권리보장법, 사회주의로동법을 비롯한 많은 법들과 국가적시책들에 의해 녀성들의 권리가 실현되고있다.

평범한 녀성로동자가 나라의 정사를 론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되고 수많은 녀성들이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자기의 정치적권리를 행사하고있다.

조선녀성들은 실업과 인신매매, 가정폭력 등 온갖 녀성구속과 불평등이라는 말조차도 모른다. 녀성들이 로동에 마음놓고 참가할수 있도록 주민지역과 공장, 기업소들에 탁아소, 유치원, 편의시설들이 꾸려져있으며 국가와 사회적부담으로 어린이들을 키우고있다.

녀성인권문제 하나만 놓고 보아도 해당 나라 사회제도의 우월성을 뚜렷이 알수 있다.

* * *

위민헌신의 나날에

명당자리

몇해전 7월 어느날 함경북도를 현지지도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경성군에 있는 비행장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여름날 정오의 따가운 해볕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비행장이 넓고 땅도 비옥하다고, 이런 광활한 옥토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하기에는 정말 명당자리라고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어떻게 하면 함경북도인민들에게 사철 푸르싱싱한 갖가지 남새를 보장해주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많이 생각해오다가 여기 비행장을 내고 현대적인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을 꾸릴 결심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현대적인 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하는것은 내가 우리 인민을 위하여 제일 하고싶었던 일이라고, 함경북도인민들의 남새문제가 풀리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이렇게 인민을 위한 보람있는 일을 찾아할 때가 제일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인민군대에서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하여 함경북도에 넘겨주면 도내인민들이 좋아할것이고 군민관계도 더욱 두터워질것이라고, 인민군대가 인민을 위하여 또 하나의 좋은 일을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류다른 기념사진

주체107(2018)년 7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원도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신 날은 숨막힐듯한 무더위가 계속되던 날이였다.

겹쌓인 피로와 무더위를 다 잊으신듯 양묘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는 그이의 안광에는 기쁨이 한껏 어리여있었다.

드넓은 부지에 규모있게 자리잡은 특색있는 건물들과 나무모밭들, 푸르싱싱 자라는 나무모들…

자체의 힘으로 대규모의 나무모생산기지를 일떠세운 강원도인민들의 애국의 마음이 그이의 심중을 뜨겁게 하여주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묘목전시장으로 향하실 때 그이의 현지지도를 몸가까이 따라서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웅심깊은 사랑, 소탈하신 풍모에 온넋이 끌린 양묘장의 녀성지배인이 총비서동지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었으면 하는 종업원들의 소원을 정중히 말씀드리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환한 미소속에 지배인을 바라보시며 종업원들이 지금 다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일요일이여서 오후에 휴식을 하는 종업원들이 더러 있다는 지배인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못내 아쉬운 표정을 지으시다가 그렇다면 찍읍시다라고 하시고는 수행성원들에게 촬영조직을 하도록 이르시였다.

이어 묘목전시장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양묘장종업원들인 제대군인부부의 살림집에도 들리시여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군사복무시절처럼 살며 일해나가라고 앞날을 따뜻이 축복해주시고 그들부부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이때 녀성지배인의 마음속에는 더 큰 욕심이 불쑥 솟아올랐다.

누가 어쩔 사이도 없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앞에 선뜻 나선 그는 종업원가족들까지도 함께 그이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게 해주시였으면 하는 심정을 또다시 아뢰이였다.

그이께서는 지배인의 외람된 청을 조금도 탓하지 않으시고 가족들도 다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시였다.

종합편의시설까지 돌아보시고 밖에 나오신 그이께서는 시간의 흐름을 두고 조급해하는 일군들의 마음을 눅잦혀주시며 도의 경제사업과 관련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종업원가족들이 다 모일 때까지 오래도록 기다려주시였다.

어느덧 어둠이 깃들어 촬영장에는 투광등까지 켜지였다. 기념촬영장소로 나오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우러르며 양묘장종업원들과 가족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영광을 받아안게 된 감격을 안고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꼭같은 작업복을 가뜬히 차려입은 종업원들과 너무도 뜻밖의 소식에 경황없이 달려나온 가족들, 소년단넥타이를 맨 학생들이며 밖에서 뛰여놀던 차림새를 한 장난군소년들과 유치원어린이들, 엄마품에 안긴 아기들 등 각이한 모습들이 보이는 류다른 기념사진은 이렇게 생겨났다.

본사기자

국가의 정치풍토, 국풍으로

오늘 조국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괄목할만한 변혁을 련이어 창조해나가고있다.

겹쌓이는 도전과 난관을 맞받아 자기 발전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가고있는 조국의 현실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자기의 정치리념으로 구현해나가고있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할데 대한 정치리념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신성시하고 모든것을 다 바쳐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며 인민을 굳게 믿고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발동시켜나가는 정치, 항상 인민들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생각을 헤아리고 고락을 같이하며 사회주의전진의 길을 함께 모색하고 이끌어나가는 령도예술은 조선로동당의 정치방식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지난해 9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우리 국가의 정치풍토, 국풍으로 공고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실속있고 목적지향성있게 전개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예로부터 정치라는 말은 인민을 다스린다는 뜻으로 써왔다.

그러나 조선로동당의 정치는 인민과 고락을 같이하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사랑과 헌신으로 일관되여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에는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인민대중제일주의립장이 응축되여있다.

조국에서는 국가사회생활전반에서 인민적인것, 대중적인것이 우선시되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것을 국풍으로 하고있다.

나라사정이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도를 마련해주고 아이들의 책가방과 학용품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관심해주고있으며 평양시와 지방들에 수많은 살림집들이 건설되고 당과 국가의 정책을 론하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의제로 어린이들을 위한 육아정책이 수립되였으며 자연의 재난이 휩쓸었던 고장들에 처음보다 더 좋은 살림집들이 펼쳐지는 등 당의 인민적성격과 본태를 뚜렷이 보여주는 사랑의 조치들은 수없이 많다.

인민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는것, 이것이 바로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인민관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정치이다.

과업이 방대할수록, 정세가 엄혹할수록 더더욱 인민에게 의거하고 인민의 힘을 발동하는것이 조선로동당특유의 정치방식이다.

조선로동당은 혁명령도의 전기간 언제나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켜 사회주의건설을 진척시켜왔다.

지난 1950년대부터 진행된 천리마운동은 근로대중의 정신력과 창의창발성을 불러일으켜 조국을 단 14년동안에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으며 1980년대에는 20리 날바다를 가로막은 세계굴지의 서해갑문을 건설한것을 비롯하여 놀라운 건설속도가 창조되였다. 1990년대말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제재와 봉쇄책동속에서도 조국인민들은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였으며 오늘은 전체 인민이 인민경제와 인민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들을 련이어 창조해나가고있다.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기에 조선로동당은 오늘 사회주의조국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다음단계의 원대한 구상과 결심을 또다시 펴나가고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국가의 정치풍토로 하는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의 구상과 결심이라면 천만산악도 떠옮기는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기에 조국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

김원식

앙양된 기세, 5개년계획수행의 탄탄대로를 닦아놓는다

- 금속공업성 국장 김세철, 전력공업성 부국장 류기찬과 본사기자의 대담 -

김세철

류기찬

오늘 조국의 어디 가나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 결정관철로 들끓는 근로자들의 열띤 모습을 볼수 있다.

얼마전 본사기자는 금속공업성 국장 김세철, 전력공업성 부국장 류기찬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지금 조국인민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에로의 거창한 변화의 서막을 열어놓은데 기초하여 5개년계획수행의 탄탄대로를 닦아나가고 있다.

국장: 그렇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밝혀진대로 조국인민들은 5개년계획수행의 확고한 담보를 구축하고 국가발전과 인민생활에서 뚜렷한 개변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 총궐기해나섰다.

당대회결정관철의 두번째해인 올해의 투쟁여하에 따라 5개년계획수행의 성패가 좌우되게 된다.

자립경제의 기본명맥을 이루는 기간공업부문을 비롯하여 농업, 경공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는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실천하고있다.

인민경제발전에서 맏아들인 우리 금속공업부문만 놓고보아도 지난해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자기들이 내짚는 한걸음한걸음에 자립경제의 운명과 나라의 장래가 달려있다는 자각을 안고 떨쳐일어남으로써 전진하는 대오에 거세찬 활력을 부어주고있다.

지난해 금속공업부문에서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산소열법용광로에 슬라크준위측정기술, 보산제철소에 로체송풍장치,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산소전로에 상하취련기술이 도입되여 생산성을 높이고 강질을 높일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뿐만아니라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초고전력전기로에 산소-미분탄취입기술을 도입하여 제강시간을 단축하고 전력소비를 줄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올해를 지난해의 앙양된 기세가 더 불타고 그 기세를 이전시켜 5개년계획수행의 탄탄대로, 기초를 닦아놓는 해로 되게 하려는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차넘치는 불같은 지향이며 의지이다.

우리는 지난해에 이룩된 성과를 긍지스럽게 돌이켜보면서도 랭정성을 가지고 교훈적인것을 먼저 분석한데 기초하여 올해 해야 할 사업들을 설계하고 실천해나가고있다.

우리 식의 철생산방법을 기술적으로 보다 더 세련시키고 원료와 연료, 자재보장을 따라세워 철강재를 계획대로 생산하며 능력확장과 현대화를 동시에 내밀고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는 과학기술을 위력한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산소열법용광로들이 용을 쓰며 쇠물을 쏟아내고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는 전기로와 압연기들의 동음이 높이 울리는 속에 강철과 압연강재생산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보산제철소, 청진제강소에서도 회전로들에 만부하를 걸고있다.

한마디로 올해 금속공업부문의 전망은 락관적이라는것이다.

기자: 금속공업부문과 마찬가지로 전력공업부문에서도 지난해의 앙양된 기세를 늦추지않고 새해에도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전력증산의 열풍을 일으키고있다.

부국장: 어디서나 요구하는것은 전력이며 그에 대한 경제부문의 수요는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있다. 우리는 지난해의 성과와 경험들을 적극 장려하고 증폭시켜 올해에도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화력발전소들에서 단열벽돌에 의한 보이라의 보온효률을 높일수 있는 기술들이 적극 도입되여 그 덕을 보고있으며 우리 식의 무중유착화를 실현할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도입된것을 비롯하여 자기의 힘과 기술, 연료에 철저히 의거하여 전력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갈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올해에도 우리는 당면한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다.

또한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이고 새로운 동력기지건설을 다그치며 다양한 자연에네르기에 의한 발전능력을 더 많이 조성해나가고있다.

기간공업부문들이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 하나의 유기적인 통일체를 이루고 전반적경제발전을 추동해나간다면 우리는 올해에 5개년계획수행의 기초를 든든히 닦아놓게 될것이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 * *

철강재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철쭉》상표로 이름난 공장

인민들의 인기를 모으는 제품들중에는 《철쭉》상표를 단 양말들도 있다.

이 제품들은 평천구역에 위치하고있는 평양양말공장에서 생산되고있다.

종업원들은 대다수가 녀성들이다.

이들은 누구나 자기 공장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있다.

공장에는 녀성근로자들을 위한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이 원만히 갖추어져있다.

녀자양말직장, 남자양말직장들에서 CNC화된 양말기들의 기대소리를 들으며 순회길을 걷는 녀성근로자들의 로동은 그대로 노래이고 기쁨으로 되고있다.

구내마다에는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있어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마련해주기도 한다.

녀성근로자들은 교대별, 기대별로 서로 돕고 이끌며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인 지난해에만도 인민경제계획완수자들이 많이 배출되였는데 백충심, 최은주, 박현옥, 김경주 녀성근로자들이 그 앞장에 섰다. 그들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올해의 생산에서도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오래동안 공장에서 일하고있는 로동자 김충실은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전 우리 공장에 찾아오시여 우리들이 만든 양말을 몸소 늘구어보시면서 그 질도 가늠하시고 우리들의 작업모습도 보아주시였습니다. 그이께서 다녀가신 우리 공장, 훌륭한 로동조건과 생활환경이 보장된 일터에서 아무리 일을 해도 힘든줄 모르고 더 하고싶어 하루가 언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녀성근로자들의 이러한 마음이 담긴 《철쭉》상표를 단 다종다양한 양말들은 평양제1백화점을 비롯한 시안의 상점들에서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슬기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산업발전을 추동하는 창작가들

곳곳에 꾸려진 아름다운 생활환경,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크고작은 제품들…

그 모든것은 산업미술도안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다.

최근 조선산업미술창작사에서 다양하고 특색있는 도안들이 수많이 창작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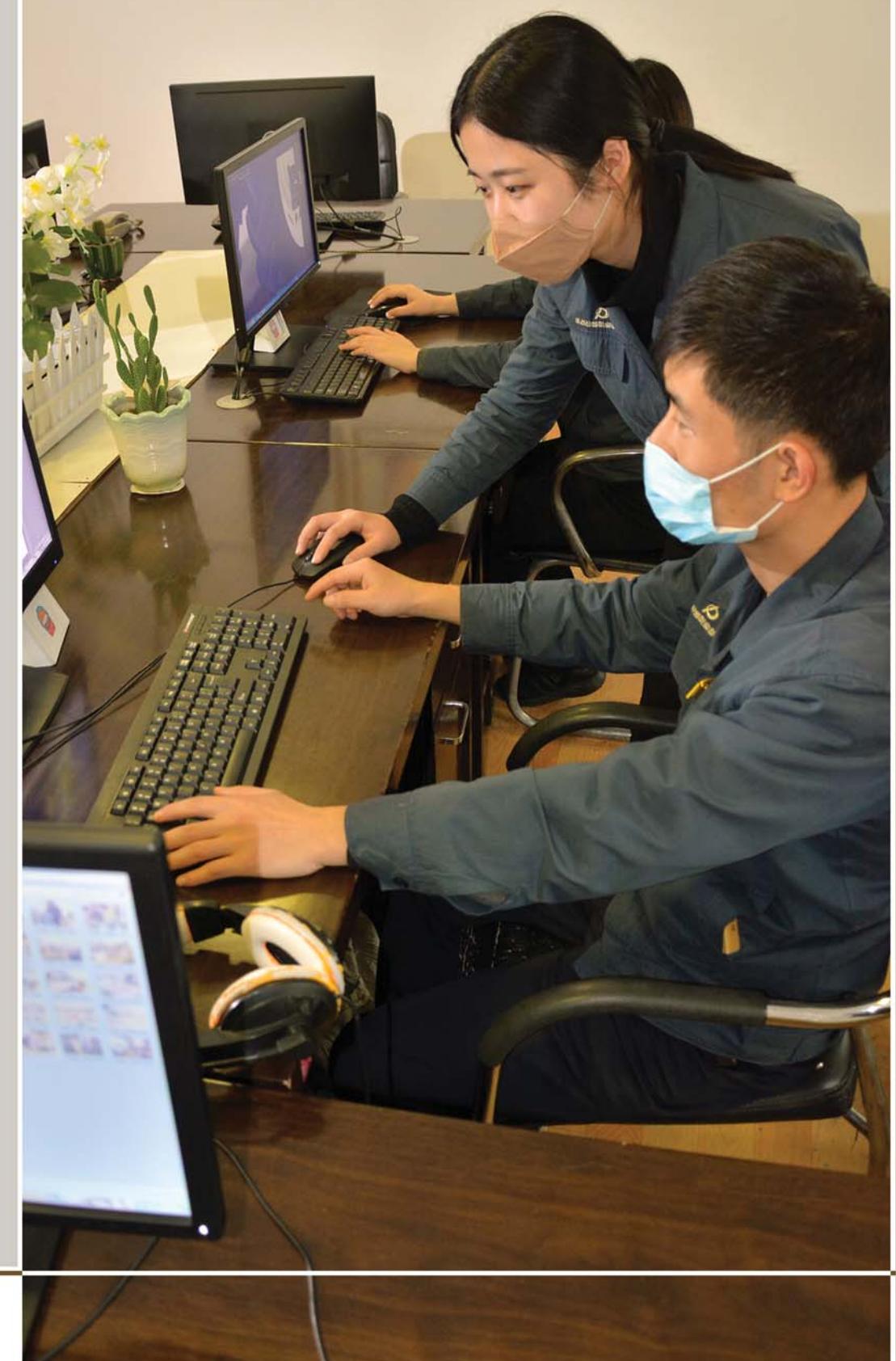
사명감을 안고

휼날리는 말갈기, 옷에 새기면 승마복을 상징하고 보급실에 붙이면 승마지식보급실을 상징할수 있게 집약화되고 통속화된 미림승마구락부마크도안.

조선화단붓질로 달리는 말의 운동감을 박력있게 형상한 이 도안은 간결성과 집중성, 상징성이 잘 보장된것으로 하여 지난 시기 전국산업미술전시회에서 1등을 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현대적인 거리들과 건축물들, 살림집과 운수수단을 비롯한 수많은 산업미술도안들에는 이곳 산업미술가들의 사색과 창작적열정이 깃들어있다.

흔히 사람들은 상표도안과 마크도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있지만 그것을 창작한 산업미술가의 얼굴과 이름은 모른다.

하지만 이곳 산업미술가들은 누가 알아주건말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앞장에서 이끄는 척후대로서의 사명감을 자각하고 명도안창작에 모든 심혈을 바치고있다.

새롭고 특색있게

《오늘 인민의 평가를 받았다고 래일도 좋은 도안으로 되지는 않는다. 새롭고 특색있는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산업미술도안이라고 말할수 없다.》

이것은 조선산업미술창작사 사장 김춘식의 말이다. 또한 끊임없이 새것을 지향하고 탐구하는 이곳 도안가, 창작가들의 하나와 같은 마음이기도 하다.

조선산업미술창작사에서 창작한 작품들중의 일부

산업미술전시회를 통하여 서로의 경험을 교환한다.

이러한 창작자세와 립장은 어제오늘에 생겨난것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67년전 창작사는 《금강》성냥상표도안으로 첫걸음을 뗐다. 경공업제품도안에 국한되였던 첫 시기에 비해볼 때 지금은 공업과 의상, 상업, 건축부문 등 도안형상의 폭이 확대되였다.

이곳 도안가, 창작가들은 인민들의 높아지는 미적요구에 산업미술도안을 따라세우기 위해 늘 현실속에 들어가고있다.

지난해 평가된 고속모내는기계형태도안, 스케트형태도안, 삼지연시와 평양종합병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안내판도안들, 각종 마크, 학생교복도안을 비롯하여 250여개 대상에 해당되는 4 000여점의 산업미술도안들은 모두 현실속에서 무르익혀진것이다.

그가운데서도 110hp뜨락또르형태도안, 15t급화물자동차형태도안, 무궤도전차형태도안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새로운 착상을 주기도 하였다.

높아가는 실기능력

미술실기는 산업미술가들의 기초적인 자질이다.

기초가 든든하여야 훌륭한 집을 세울수 있듯이 그들은 소묘, 채색, 서예와 같은 실기훈련을 일상적으로 하여야 명도안이 나올수 있다고 간주하고있다.

창작사에는 평양미술대학, 평양출판인쇄대학 산업미술학부를 졸업한 수십명의 창작가들이 주류를 이루고있다. 뿐만아니라 현재 원격교육을 받으며 창작활동을 진행하는 도안가들도 적지 않다.

그들의 실기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창작사에서는 해마다 봄과 가을에 10여일씩 공장, 기업소, 농촌, 공원, 유원지 등에서 현지습작을 진행하고있다.

창작가들의 실기능력은 습작발표회, 합평회를 통해서도 높아지고있다. 특히 합평회는 창작중에 있는 도안들이 명도안으로 되도록 집체적지혜를 합쳐가는 적절하고 좋은 기회로 되고있다.

오늘 조선산업미술창작사의 산업미술가들은 시대가 요구하는 도안들을 더 많이 창작할 마음을 안고 더욱 부강할 조국의 래일을 도안들에 담아가고 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발갈이노래》를 들으며

한겨울의 추위도 다 가셔지고 따뜻한 봄의 훈향이 감도는 계절,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 왔다.

농촌의 어디를 가보아도 농사차비로 드바쁘다.

얼마전 나는 만경대구역 만경대남새전문농장을 찾았다.

뜨락또르로 밭을 갈고 씨뿌리며 일하는 농민들의 얼굴마다에는 기쁨의 미소가 출렁이고 입가에서는 흥겨운 노래소리가 울려퍼지였다.

백두산말기에 백학이
너울너울
해방된 강산에 뻐꾸기
뻐꾹 뻐꾹
아 장군님 주신 땅
에루화 데루화 모두다 떨쳐나
발갈이가세
…

제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지어보고싶던 조국인민의 세기적인 숙망을 풀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은덕을 길이 전하는 가요 《발갈이노래》.

75년전에 창작된 노래가 아직도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인민들속에서 불리워지고있는것을 보니 생각도 깊어졌다.

땅!

예로부터 땅은 농민들의 생명과도 같은것이였다.

장구한 세월 제땅이 없는 설음에 피눈물을 뿌리며 온갖 천대와 멸시를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였던 농민들이였다.

봄내여름내 두손이 모지라지게 땅을 뚜지고도 가을이면 모조리 빼앗긴 울분에 가슴을 쥐여뜯던 그들이였다.

한뙈기의 땅, 한줌의 낟알이 없어 혈육들이 굶어쓰러질 때 얼마나 제땅을 갈망했던가.

이 땅의 한 시인은 해방전에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고 찾아온 봄에 울분을 터치였다.

과연 언제부터였던가.

농민들의 가슴에 봄이 찾아온것은.

그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된 이듬해인 주체35(1946)년 3월 5일 력사적인 토지개혁법령을 발표하신 그날부터였다.

제땅, 제 나라가 없는 설음이 한가슴에 응어리져있는 인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일제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토지를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믿을래야 믿을수 없는 너무도 놀라운 사실앞에서 감격에 울고웃으며 《**김일성**장군 만세!》, 《토지개혁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면서 우리 수령님 주신 땅에 얼굴을 부비며 분여받은 제땅에서 밤이 지새도록 떠날줄을 모르던 이 나라 농민들.

세월의 언덕을 넘어 그들의 모습을 그려볼수록 가슴뜨거워진다.

토지개혁법령의 발포, 정녕 그날이 없었다면 우리 농민들의 운명에서의 극적인 전환의 날도 없었고 그들의 가슴마다에 봄이 깃들지 못했을것이다.

제땅에서 씨뿌리고 밭을 가는 농민들의 생활 하루하루는 그대로 노래였고 기쁨이였다.

이들의 기쁨은 노래 《발갈이노래》로 창작되여 온 나라에 울려퍼졌다.

농민들은 이 노래를 즐겨부르며 전화의 나날에도 불비속에서 전선원호의 보탑을 억세게 틀어잡았고 조국의 한치한치의 땅도 피로써 지켜냈으며 이 나라의 전야를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변모시키였다.

그렇다.

《발갈이노래》, 이 노래는 단순히 땅에 대한 추억만을 안겨주지 않는다. 이 노래야말로 땅의 주인이 된 인민이 세세년년 부를 노래, 행복의 노래이다.

하기에 오늘도 농민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사회주의의 넓은 대지마다에 씨앗을 뿌려가고 오곡백과 주렁지는 사회주의농촌의 밝은 앞날을 확신하고있으며 다수확의 열풍, 과학농사의 열풍을 일으켜나가고있는것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임향심

변모되는 농업생산토대

조국에서 토지개혁법령이 발포[주체35(1946)년 3월 5일]된 때로부터 7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토지개혁법령의 발포는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만들고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를 뿌리채 뽑아버린 거대한 사변이였다.

그때부터 농민들은 제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짓게 되였으며 농촌경리는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게 되였다.

주체47(1958)년에 농업협동화가 완성되여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더욱 강화되게 되였다.

1960년대 조국에서는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발표되고 그 관철을 위한 기술혁명이 힘있게 벌어지면서 농촌경리의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가 적극 추진되였다. 특히 이미 건설한 관개공사의 경험과 공법에 토대하여 수리화를 위한 물길공사들이 대대적으로, 년대를 이어 줄기차게 진행되였다. 그것은 물을 마음껏 써보고싶어하는 농민들의 소원을 풀어주는것이였고 다른 하나는 가물을 이겨내고 농사에서 높으면서도 안전한 수확을 내여 농업생산의 부단한 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더우기 논농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해마다 큰물과 가물피해가 심한 실정에서 수리화는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20리 날바다에 서해갑문이 건설된 후 물길공사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였다. 황해남도에서는 양수동력에 의한 3개의 큰 물길이 건설되였고 황해북도에서는 남강물을 미루벌로 끌어가는 물길공사가 진행되였다.

당시 총물길공사량은 방대한 것이였다.

서해지구 물길의 총연장길이만 해도 기본물길이 1 000리, 가지물길이 1 000리 하여 모두 2 000리나 된다.

조상대대로 넘겨받아오던 대지를 변모시키기 위한 토지정리사업에서도 변혁이 일어났다.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는 토지정리와 수리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 사업에서 전변이 이룩된 나날이였다.

그때는 있는것보다 없는것이 더 많았고 적대세력들의 책동으로 하여 긴장한 정세가 항시적으로 조성되고있던 시기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방대한 대자연개조사업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지만 조국은 군대의 힘, 인민의 힘을 믿고 온 나라의 토지를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단행하였다. 이는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기도 하였다.

주체87(1998)년 10월 강원땅에서 토지정리의 첫삽을 박은 건설자들은 이듬해 4월까지 수만정보의 뙈기논밭들을 규격포전으로 정리하였다. 이 기간 정리된 땅에서 많은 논배미와 논두렁이 없어지고 수천정보의 새땅이 더 생겨나는 현실이 펼쳐졌다.

강원도에서 시작된 토지정리는 그후 평안북도와 황해남도, 평안남도와 평양시 등으로 이어져 수십만정보의 토지가 정리되게 되였으며 대규모의 규격포전으로 전변된 벌마다에서는 기계화의 동음이 높이 울리였다.

이미 세워져있던 양수동력에 의한 관개체계를 독특한 자연흐름식관개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대한 건설공사도 힘있게 벌어졌다.

주체91(2002)년 10월 처음으로 개천-태성호물길이 대규모자연흐름식관개체계의 본보기로 건설된데 이어 백마-철산물길, 미루벌물길이 완공됨으로써 조국의 대지에 3대자연흐름식물길이 형성되게 되였다.

대규모관개체계의 형성으로 농업생산에 필요한 관개용수가 넉넉히 마련되여 전국의 많은 도, 시, 군에서 알곡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게 되였으며 이 일대의 양수보장에 쓰이던 전기가 더는 필요없게 되였다.

3대자연흐름식물길이 건설된 결과 총 670여개소의 양수장과 1 000여대의 양수기, 전동기가 없어져 수십만kW의 전기를 절약하게 되였다. 이와 함께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원만히 해결하였으며 두벌농사가 장려되고 축산과 양어를 발전시킨것을 비롯하여 이 관개체계는 농업생산토대를 튼튼히 하는데서 큰 은을 나타내였다.

년대와 년대를 이어 발전의 일로를 걸어온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생산토대는 오늘 더욱 변모되여가고있다.

토지정리, 자연흐름식물길공사가 계속 확대되고 대규모간석지건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여 수많은 새땅이 생겨나고있으며 조국의 대지가 넓어지고있다. 그리고 불모의 땅이였던 강원도의 세포등판이 대규모축산기지로 전변되고 장천땅이 도시사람들도 부러워하는 농장도시로 전변되였다.

그런가 하면 무릉도원을 펼친 고산과수종합농장과 종합적기계화가 실현되고 감자농사에서 통장훈을 부른 삼지연시 중흥농장, 온실건설에서 본보기를 창조한 중평남새온실농장 등이 새 모습을 펼치였다.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되여 오늘까지 이룩된 이러한 현실은 조국인민들로 하여금 보다 변모되여갈 농업생산토대, 사회주의문화농촌의 래일을 확신하게 하고있다.

본사기자

수십만정보의 토지가 규격포전으로 전변되였다.

슬라크준위측정기술을 개발도입한 연구집단

최근시기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그 비결의 하나가 **김일성**종합대학 수학부 정보수학연구집단이 기업소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주동적으로 맡아안고 해결한데 있다.

스스로 뗀 첫걸음

몇해전 **김일성**종합대학 수학부 정보수학연구집단은 어느 한 기회에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찾게 되였다. 당시 용광로직장에서는 슬라크에 대한 측정기술이 미약하여 용해시간이 늦어지고 그로 하여 생산에서 지장을 받고있었다.

일반적으로 용해작업과정에는 쇠물우에 슬라크층이 생겨나는데 그 층이 얇으면 로안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선철의 질과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두꺼워지면 림계높이를 벗어난 슬라크용액이 순간에 로체밖으로 넘어나 사고로 이어질수 있었다.

슬라크준위측정기술개발은 산소열법에 의한 선철생산에서 관건적인 문제로 나서고있었다. 당시 이 문제를 놓고 연구집단은 한동안 모대기였다고 한다. 누가 연구과제를 준것도 아닌데 맡았다가 실패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 이 부문의 과학자들도 아닌 수학전문가들인 자기들이 해낼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심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철의 질을 높이고 생산을 늘이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 나라의 과학자라면 무조건 해결해야 한다는 량심과 의무감을 안고 연구사업의 첫걸음을 내짚었다.

그때를 추억하며 리광일소장은 말하였다.

《현실에서 절박하게 기다리는 문제를 스스로 맡고나니 어깨가 무거웠다. 그러나 그 누군가가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별로 가벼워지는것 같았다.》

끝까지 간 애국의 길

슬라크준위측정기술개발은 쉽지 않았다.

연구집단은 여러 방법을 적용해보며 시험을 진행하였지만 실패를 거듭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참고할만한 문헌자료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들은 출선과 출제를 비롯하여 작업공정이 바뀔 때마다 로의 진동이 매번 다르게 느껴진다고 하는 한 용해공의 이야기속에서 연구의 실마리를 찾게 되였다. 초점은 매 작업공정에 따르는 로의 진동상태를 측정하는데로 돌려졌다. 황철의 기술자들과 로동자들도 연구집단의 사업을 도와나섰다. 로동자들은 오랜 현장생활과정에 쌓은 경험들을 연구사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들은 낮에 밤을 이어 현장에서, 숙소에서 탐구에 탐구를 거듭하였다. 숙소에 들어서서는 주전자에 물을 가득 채워넣고 그것을 끓이면서 온도변화에 따르는 진동값을 측정하는 실험을 계속하였다.

그 과정에 그들은 진동값에 의한 슬라크준위측정방법이 가능하며 정확성을 보장할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였다. 그에 기초하여 측정장치의 제작과 프로그람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되였다.

로진동에 의한 정확한 신호를 잡기 위한 그들의 진지한 노력은 낮에 이어 중요하게는 야밤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되였다.

이런 노력으로 하여 연구집단은 마침내 각이한 조건에 따르는 신호변화에 대응할수 있는 정확한 프로그람을 작성하였으며 측정장치도 완성하였다.

지금 그들이 연구완성한 슬라크준위측정기술은 현실에 도입되여 큰 은을 나타내고있다. 용해작업을 과학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연료를 극력 절약하면서도 안전하게 선철생산을 늘여나갈수 있게 되였다.

흔히 과학자라면 비상한 두뇌와 높은 실력으로 과학연구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나라에 유익한 일을 찾아서 하는 마음, 어려운 일일수록 반드시 자기가 해야 할 일로 여기고 선뜻 맡아안은 자각과 헌신의 정신이 그들로 하여금 선철생산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게 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최기철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고있다.

상 식

고려의 수학자 강보

강보는 서운관의 정벼슬에 있으면서 수학, 천문, 력학 등을 연구하였다. 그는 수시력을 만드는데 필요한 수학문제를 연구하는 과정에 《$x^4+ax^2+bx+c=0$》형태의 1원4차방정식의 정수뿌리를 근사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내놓았다.

강보는 이 계산식으로 수식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자기가 새롭게 만들어낸 력서인 수시력을 해마다 손쉽게 수정할수 있는 수표 《수시력립성》을 내놓았다.

그 이후 강보는 력법의 비결을 고스란히 공개하는 《수시력첩법립성》 3권을 편찬하였다. 이 책은 1343년에 출판되였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19세기에 이르러서야 4차방정식의 풀이법이 발견되였다.

*　　*　　*

교육정보화를 다그쳐

지난해 10월 가상전람회방식으로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21이 진행되였다.

전국적범위에서 우수한 정보화, 정보산업 및 정보기술성과와 제품들이 출품된 전람회는 나라의 정보산업발전을 추동하는 계기로 되였다.

전람회에서 평양시의 대성구역 려명소학교가 2021년 10대정보화모범단위로 선정되였다.

전문기술집단도 아닌 소학교가 정보화사업에서 전국의 본보기로 지정된것은 많은 사람들의 초점을 모았다.

학교에서는 이번 전람회에 자연편집물, 정보기술교육지원프로그람을 비롯한 여러건의 가치있는 정보기술제품들을 출품하였다.

학교실험실이 아닌 임의의 장소에서도 일반자원을 가지고 자연실험을 능히 할수 있게 도움을 주는 자연편집물은 학생들의 탐구, 착상능력을 높여주는 우점을 가지고있다.

이미 학생들의 인식능력대비조사를 통해 검증된 제품은 교수교양에서 보다 실리있는 제품으로 심사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출품된 제품들은 그 안정성과 품질이 매우 높은것으로 하여 우수하게 평가되였다.

주체106(2017)년에 이 학교교원들이 개발한 교육자원열람프로그람 《나의 학교》1.0은 이미 전국의 소학교들에 도입되였다.

프로그람은 현대교육발전추세자료들과 우수한 교수방법들을 비롯한 교육정보자원들을 실시간 열람, 리용할수 있으며 학교의 교수 및 업무사업도 통일적으로 장악관리할수 있어 교수사업과 학교운영에서 매우 실리적이다.

지난 기간 학교에서는 자체의 인재력량에 의거하여 정보화기반을 튼튼히 구축함으로써 교원진영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실력도 높이였다.

김윤희를 비롯한 실력이 높은 교원들로 개발조를 뭇고 그들이 프로그람개발과 함께 모든 교원들의 정보기술실력을 끌어올리는데서 주도적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교원들은 교육사업과 병행하여 프로그람개발사업에 몸을 잠그었으며 그것은 점차 전교적인 사업으로 전환되여 정보화열풍을 일으켰다.

학교의 거의 모든 교원들이 자체로 정보기술제품들을 개발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며 자기가 만든 제품들을 국가심의에 출품시키는 과정에 학교의 정보기술력량은 한층 장성하게 되였다.

이 나날에 수십개의 정보기술제품들이 창안도입되고 모든 교수사업과 업무활동이 정보화됨으로써 학교운영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실리있는 새 교수방법들이 창조되고 모범교수자대렬도 늘어났다.

김윤희는 학교의 교육지원프로그람개발과 교원들의 정보기술실력제고에서 주도적역할을 하고있다.

교원들의 자질은 곧 학생들의 실력에서 나타났다.

해마다 최우등의 성적을 쟁취하는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고있다.

교장 홍광옥은 《교육의 정보화수준이자 학생들의 학과실력의 높이, 교육의 발전정도라고 말할수 있다. 지난해말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도 모든 학생들을 참다운 혁명인재, 유능한 창조형의 인재, 사회주의후비대로 키우는것을 새 세기 교육혁명의 기본목적으로 내세웠다. 교육을 조국의 미래를 마음놓고 떠맡길수 있는 가장 우월한 교육, 리상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킬 무거운 책임감, 의무감이 바로 우리 교육자들에게 지워져있다.》라고 말하였다.

집체적지혜를 모아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해간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연극 《멸사복무》

지난해 12월 국립연극극장에서 첫막을 올린 연극 《멸사복무》에 대한 여운은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짙게도 남아있다.

출퇴근길과 일터에서 이 연극이 사람들의 화제에 자주 오르고있다.

되새겨보는 당일군의 모습

작품은 어느 한 산골군의 군당책임비서를 주인공으로 하여 그를 비롯한 일군들이 인민을 위해 진심을 바쳐가는 내용을 담고있다.

연극은 저수지공사를 놓고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이야기가 전개되고있다.

주인공인 군당책임비서 리준걸은 임명되여오자마자 군을 추켜세우기 위한 방도를 모색한다.

그는 농장원들과 담화하는 과정에 물만 많으면 다수확을 이룩할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일군들에게 군에서 진행하고있는 저수지공사를 3달동안에 끝내자고 호소한다.

농번기인데다 벌려놓은 일들이 너무도 많아 일부 사람들이 우려를 표시했지만 그는 일군들과 함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힘을 믿고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키며 공사를 진척시켜나간다.

이 나날 그는 지난날에 범한 과오를 새로운 벼품종육종으로 씻으려는 이전 농장일군의 진정을 귀중히 여기고 그를 어머니정으로 따뜻이 품어줄뿐 아니라 중등학원을 졸업한 군안의 원아들을 고향땅의 참된 아들딸로 키워간다.

그리고 제대되여온 아들이 저수지공사에 앞장서도록 적극 이끌어준다.

일부 일군들의 오해도 받고 아들도 공사과정에 희생되였지만 그는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산골군을 누구나 부러워하는 살기 좋은 군으로 꾸려놓는다.

눈물도 웃음도 랑만도 있는 연극은 오늘날 일군들은 인민을 위한 고생에서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그들의 웃음소리에서 행복을 찾을줄 아는 인민의 심부름군이 되여야 한다는 사상적 내용을 주고있다.

연극에서 제일 인상깊은 장면은 물에 빠진 아이를 구원하지 못한 한 일군과 아이를 구원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이다. 대가를 모르는 어머니의 사랑을 극적인 세부로 형상하여 당일군들이 인민을 어머니의 심정으로 돌보아야 한다는것을 의미있게 시사해주고있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극장

연출가
공훈예술가 김철윤

군당책임비서역
공훈배우 최우만

군당책임비서의 아들역
배우 김주현

군인민위원회 부위원장역
공훈배우 김순희

분조장역
배우 황련희

오종만역
배우 원설하

은 무대와 객석이 하나의 숨결로 높뛰였으며 관중들은 주인공의 세계에 심취되여있었다.

공연을 본 농업위원회 국장 장광혁은 공연관람후 기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일군들이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일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 이런 일군을 인민들은 존경하고 따르는것이다. 연극은 바로 대중의 이러한 심리를 꾸밈없이 반영하였다. 대중이 바라는 일군, 인민에게서 우리라는 호칭으로 불리우는 일군을 산모습으로 보여준 창작가들과 배우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싶다.》

현실에 발을 붙이고

지난 시기 5대혁명연극과 **김일성**상계관작품들인 경희극 《산울림》,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를 비롯하여 많은 연극들을 창작창조한 국립연극단은 조국의 관록있는 예술단체이다.

연극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변혁의 시대를 반영한 연극 《멸사복무》를 훌륭히 형상하기 위하여 뜻과 지혜를 모았다.

창작가들은 실지 원형인물이 일하고있는 군에 나가 그곳 인민들과 함께 침식도 하면서 대중이 따르는 일군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체험하였으며 그 과정에 사람들 누구나가 공감하는 작품을 짧은 기간에 창작하게 되였다.

배우들도 현실에 몸을 잠그고 산골군사람들의 체취를 무대에 그대로 펼쳐놓기 위하여 체험을 진지하게 하였다.

특히 작품의 주인공인 군당책임비서역을 맡은 공훈배우 최우만은 원형인물과 생활하는 과정에 그에게 완전히 매혹되였다.

《멸사복무라는 말에는 인민을 위해 일군이 있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나는 원형을 만나보는 과정에 멸사복무라는 말의 참의미를 다시한번 새기게 되였다. 그의 머리속에는 자기자신보다 군내인민들의 행복이 먼저 놓여있었다. 그 길에서 사랑하는 아들도 잃었지만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인민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였다.》라고 최우만배우는 말하였다.

최우만배우는 군당일군을 취급한 조선예술영화들을 다시 보면서 당일군의 갖춤새, 행동거지, 말투 등을 연구하였다.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 《혈맥》을 비롯한 연극들에서 주역, 주인공역을 수행한 그는 이번 연극에서 공훈배우로서의 실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또한 경희극 《산울림》을 비롯한 여러 연극들에서 개성적인 연기로 인민들의 기억속에 남아있는 많은 배우들이 출연하여 관중들을 감동시켰다.

창작가, 배우들의 이런 노력에 의하여 연극은 극적인 견인력을 가진 작품으로 관중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였다.

글 본사기자 김승기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안경에 비낀 모습들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자리잡고있는 향만루상점 분점은 안경봉사를 전문으로 하는 상점이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의 시력을 보호하고 눈을 더 밝고 아름답게 하여주는데 필요한 안경알들과 안경테, 접촉렌즈들을 봉사하고있다.

안경테만 하여도 백금테와 금테, 티탄테, 보석장식테, 마호가니나무테로부터 재질과 모양, 색갈이 다양한 안경테들이 있어 누구나 건강과 기호에 맞는것을 골라잡을수 있다.

또한 색안경, 물안경을 비롯한 각종 안경들도 있다.

판매원들은 손님들의 얼굴형과 얼굴색, 나이와 취미, 기호에 맞게 맵시있고 가벼우면서도 든든한 안경테와 자외선차폐도 되여있는 안경알들을 선택해주어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분점문을 나서도록 하고있다.

언제나 상냥한 얼굴로 례의있게 손님들을 맞고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판매원들의 친절한 봉사는 손님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있다.

만경대구역 광복1동에 살고있는 리해

국로인은 《판매원들이 정말 다심하다. 그들은 부모에게 안경을 골라주는 자식된 심정으로 시력검사도 해주고 얼굴형태와 눈생김에 꼭 맞는 안경을 선택해주기 위해 마음써주었다. 그리고 손전화번호를 알아두었다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안경사용에서 애로되는 문제가 없는가, 지금도 글자가 잘 보이는가 등 세세히 관심해주었다. 해외에서 많은 나날을 보낸 나는 다른 나라들에서 볼수도 느낄수도 없었던 류다른 감정을 조국에서, 이 분점에서 다시한번 깊이 느끼게 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뿐 아니라 분점에서는 봉사활동의 령역을 더욱 넓혀 주체103(2014)년부터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무상봉사를 진행하였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바이지만 안경에 대한 수요는 과학자, 기술자들속에서 제일 높았다. 그래서 상점에서는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탐구의 먼길을 가는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안경봉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리금주판매원은 말하였다.

이곳에서는 국가과학원, 평양도시설계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연구사들에 대한 봉사를 진행하였다.

판매원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시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매 사람들의 특성에 맞는 안경알들과 테들을 골라 즉석에서 봉사해주었다. 긴급연구과제로 장기출장중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동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국가과학원 실장 안종혁은 봉사받은 안경을 들고 《나라에서는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생활상불편이 없도록 최근년간에만도 고급살림집을 비롯하여 배려를 돌려주고있다. 비록 안경은 작지만 여기에도 국가적관심과 향만루상점 분점 일군들과 판매원들의 애국의 마음이 담겨져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고마운 제도와 사람들의 기대와 믿음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다시 눈을 뜬 100살장수자

《나는 지금 안경을 끼지 않고 신문을 읽으며 TV도 보고 화분도 가꾸고있습니다. 내가 100살이라고 하면 과연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라고 평양시 동대원구역 률동 1인민반에서 살고있는 리채선로인이 말하였다.

사람이 천냥이면 눈은 팔백냥이라고 일러오듯이 사람이 100살까지 장수하는데다가 눈까지 밝으니 이거야말로 비단우의 꽃이라고 할수 있다.

100살장수자의 밝은 눈, 이것이 과연 로인의 행운이겠는가.

…

지난해 4월 1일 리채선로인은 100번째 생일을 맞았다.

로인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은정어린 생일상을 받아안은 때로부터 더 건강하여 락천적으로 생활하였다.

그러던 9월중순 어느날 로인의 눈앞은 갑자기 캄캄해졌다.

《벌써 날이 어두워졌구나. 얘야, 어서 불을 좀 켜다오.》

리채선로인은 부엌에 있는 딸 오명숙(65살)에게 방안의 불을 켜라면서 손더듬을 하였다.

어머니의 이 말을 들은 오명숙은 깜짝 놀랐다.

(이렇게 밝은 대낮에 어둡다니?)

오명숙은 4년전에 어머니의 백내장수술을 해주었던 류경안과종합병원 부원장선생에게 전화를 한 다음 병원으로 갔다.

검사결과에 의하면 수술받았던 오른쪽눈에 수술후 로인들에게서 나타나군 하는 우발증이 나타났으며 왼쪽눈에도 백내장이 생기였다.

병원에서는 100살장수자의 백내장수술에 앞서 수술협의회만도 여러 차례 진행하였다.

그를 수술하자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였다. 한가지는 초음파유화흡입술로 왼쪽눈을 수술하는것이였고 다른 한가지는 이번 기회에 4년전에 백내장수술을 받았던 오른쪽눈을 레이자로 후낭절개하는것이였다. 론의의 초점으로 된것은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의 나이가 너무 많은것이였다.

백내장과 과장 최균진은 이렇게 말하였다.

《100살 넘은 장수자의 눈을 수술하기는 우리 병원이 생겨 처음이였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런 증례는 없을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은 로인이 수술을 견디여낼수 있겠는지, 수술후 영양장애가 들어오지 않겠는지 여러모로 위구심이 많았지만 과학적타산밑에 대담하게 수술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류경안과종합병원의 의료집단은 치밀한 수술계획과 높은 의료기술, 뜨거운 정성을 다하여 리채선로인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수술후에도 로인에 대한 병원의료일군들의 보살핌은 각별하였다.

며칠후 로인이 안대를 푸는 날이 왔다.

《할머니, 제가 보입니까?》

과장 최균진, 담당의사 현충신을 비롯하여 병원의 일군들과 간호원들이 리채선로인을 둘러싸고 숨을 죽인채 지켜보았다.

《보입니다. 선생님들도 밝은 이 세상도 다 보입니다. 인생을 다 산 몸이나 같은 내가 돈 한푼 내지 않고 또다시 광명을 찾게 되니 이런 고마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감격에 넘쳐 눈물만 흘리였다.

잠시후 로인은 하얀 종이우에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다시 눈을 뜬 100살장수자 리채선로인은 새해를 맞으며 101살이 되였다.

글 본사기자 연옥
사진 본사기자 김평

민족과 운명

태권도의 창시자 최 홍 희

국제태권도련맹의 초대총재였던 최홍희(1918. 11-2002. 6.)는 주체44(1955)년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여온 민족무술들의 기술동작들과 훈련방법들을 토대로 하고 여기에 과학적인 원리들을 도입하여 발전시킨 무술을 태권도라고 명명하였다.

그는 주체55(1966)년 태권도를 세계적범위에로 보급하기 위하여 국제태권도련맹을 창설하였다.

전 국제태권도련맹 총재 최홍희.

그의 인생은 우리 민족의 정통무도인 태권도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주체7(1918)년 11월 9일 오늘의 함경북도 화대군에서 태여난 그는 부모들의 권유로 어릴 때부터 서예를 익히며 자랐다.

선천적으로 약한 체질의 아들에게서 부모들이 바란것이란 뛰여난 서예가가 되는것이였다.

당시 최홍희의 스승은 그에게 서예를 가르치는 한편 무술도 짬짬이 배워주었는데 그것은 우리 선조들이 즐겨하던 택견이였다.

이것은 그가 무도에 첫발을 들여놓은 시점으로 되였다.

그후 그는 향학열에 불타던 청년시절을 일본에서 보냈다. 그곳에서 그는 가라데를 배우게 되였는데 부단한 숙련으로 2단실력까지 소유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실력을 소유해도 그것이 자기 민족의것이 아니라는 민족적자존심은 그로하여금 가라데보다 더 훌륭한 민족무도를 발굴, 발전시켜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하였다.

주체35(1946)년부터 그는 새로운 무도의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달라붙었다. 그는 피타는 노력을 경주하여 마침내 새로운 무도리론과 동작들을 찾아내였다.

주체44(1955)년 4월 그는 완성한 민족무도를 태권도라고 명명하고 세상에 선포하였다.

그가 명명한 태권도의 매 글자를 풀이하여보면 태는 발로 뛰고 밟는다는 뜻이고 권은 주먹으로 찌르며 혹은 부신다는 뜻이며 도는 옛 성현들이 닦아놓은 옳바른 길을 걷는다는 뜻 즉 정신수양을 의미하였다.

그는 하루가 24시간으로 되여있고 24시간이 끊임없이 이어져 전 생애를 이룬다는 뜻으로 태권도를 24개의 틀로 정하였으며 틀의 모든 요소들에 민족의 정신과 넋, 력사와 문화를 그대로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

단군틀, 도산틀, 원효틀, 률곡틀을 비롯하여 틀의 명칭과 동작의 수를 그 시대에 일어난 사실 또는 우리 나라 력사적인물들의 이름이나 호를 따서 만들었고 도복도 백의민족의 전통적인 옷색갈을 상징하는 흰색갈로 하였으며 도복의 표식도 조선글자로 《태권도》라고 새기였다.

조선민족의 넋과 기상이 어린 태권도를 세계에 보급하기 위해 온갖 정력을 기울이는 최홍희

국제태권도경기의 심판용어도 우리 민족언어로 규정하였다.

태권도창시후 그의 활동은 그 보급을 위한 나날속에 분망하게 이어졌다.

그는 태권도를 세계적범위로 보급시키기 위하여 주체55(1966)년에 국제태권도련맹을 창설하고 총재로 되였다.

이 나날에 그는 참된 무도인의 깨끗한 량심과 온갖 정력을 기울여 태권도인들을 수많이 키워내였다.

그는 민족의 넋이 어린 태권도를 세계에 보급하는것을 자기의 커다란 숙원으로 간주하였다.

민족의 넋과 량심을 귀중히 여기였기에 그는 태권도가 그 어떤 개인의 정치도구로 리용되는것

최홍희선생의 유해는 신미리애국렬사릉에 안치되여있다.

평양의 대동강반에 자리잡고있는 김성주소학교의 태권도소조는 전국적으로 진행된 소학교부문 태권도경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종합1위를 쟁취한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경기들에서 메달들과 우승컵을 쟁취하였다.

조국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민체육인, 공훈체육인, 체육명수들속에는 이 학교의 태권도소조 졸업생들도 적지 않다.

제10차 청소년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와 제21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속에는 조선서해안의 항구도시 남포시에 자리잡고있는 남포시태권도선수단 선수들도 있다.

지난 기간 경기들에서 수백개의 금메달들을 쟁취한 선수단의 활동에서 태권도모국의 모습을 엿볼수 있게 한다.

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았다.

《5.16군사정변》이후 남조선현실에 환멸을 느낀 그는 주체61(1972)년 해외에로의 망명의 길에 올랐다.

사실 그의 가슴속에는 민족의 무도 태권도창시자라는 긍지감도 컸지만 지난 시기 본의아니게 인생길을 잘못 걸어 민족앞에 저지른 과오에 대한 죄의식이 더 깊이 묻어있었다.

조국이 해방되기 한해전에 일본군대에 학도병으로 강제징집되였던 그는 1945년 평양주둔 일본군사단에 조직되였던 《반일학도병무장대》의 한 지도성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남조선군의 조직자의 한사람으로서 지난 전쟁시기에는 《멸공》을 부르며 동족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던 사람이였다.

이국땅에서의 쓰라린 망명생활을 체험하는 과정에 그는 오욕된 과거와 결별하고 민족적량심을 되찾았으며 태권도를 수단으로 하여 민족통일성전에 이바지할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되였다.

그의 이러한 애족의 마음과 통일지향을 귀중히 여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에게 조국방문의 길을 열어주시였다.

주체68(1979)년 5월 12일 멀리 해외에서 사회주의조국을 찾아온 그를 무려 3시간반동안이나 만나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와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나라의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한없이 넓은 도량, 고매한 덕망에 깊이 감동이 된 그는 자신은 오늘 참다운 애국의 넋을 받아안고 새롭게 태여났다고 하면서 이렇게 심정을 토로하였다.

《주석님을 뵈오러 갈 때 저는 옷은 비록 먼지하나 묻지 않은 새옷을 입고갔지만 인생의 세파에 부대낀 어지러운 사상의 먼지는 털어버리지 못한채 갔었습니다. 그런데 주석님께서는 그 모든 사상정신적먼지를 주체의 맑은 물로 깨끗이 가셔주시였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과거의 최홍희가 아니라 새로운 최홍희입니다.》

그후 그는 해외에서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나가기 위하여 적극적인 애국활동을 벌리였다.

태권도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 광범히 보급되여 수련생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주체70(1981)년 10월에 또다시 조국을 방문한 그를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으로도 조국통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약하리라고 믿는다고 크나큰 신임을 안겨주시였다.

그는 그 믿음을 안고 태권도의 기술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끊임없는 정력을 기울이였으며 15권으로 된 태권도백과사전을 집필한데 이어 태권도종합본도 완성하였다.

주체81(1992)년 4월 조국을 방문한 그를 만나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의 자랑인 태권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여러 나라들에 널리 보급할데 대하여서와 태권도를 가지고 조국통일성업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의 희망대로 평양시의 가장 좋은 자리에 규모도 크고 웅장한 태권도전당을 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은 그대로 그의 운명과 태권도발전의 활력소로 되였다.

민족의 우수한 정통무도도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진정한 조국이 있고서야 빛날수 있고 민족대단합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는 귀중한 진리를 그는 절감하였다.

그는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해외에서 태권도를 발전시키고 전 세계의 범위에로 널리 보급하는 사업에 자기의 심혈을 다 바치였다.

조국에서는 민족의 정통무도인 태권도에 한생을 바쳐온 그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명예체육박사칭호 그리고 국기훈장 제1급과 로력훈장, 조국통일상수상자의 영예와 함께 애국렬사의 값높은 삶을 안겨주었다.

주체91(2002)년 6월 15일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유해는 신미리애국렬사릉에 안치되였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두 사회제도의 판이한 현실

사람들사이에 따뜻한 사랑과 정이 넘쳐나는 조국에는 고상한 륜리도덕의 향기가 감돌고 있다.

사회의 화목은 가정의 화목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모란봉구역도로시설관리소에서 일하는 리명옥녀성의 가정은 화목한 분위기가 감도는 아늑한 보금자리이다.

그의 남편 조금철은 특류영예군인이다. 리명옥은 가정을 이룬 후 20여년세월 남편에게 자기의 사랑과 정을 깡그리 쏟아붓고있다. 특류영예군인을 돌보는 일만으로도 떠받들리우며 살아갈수 있는 리명옥이지만 스스로 도로관리공이 되였다.

《내 걱정은 마오. 당신이 내 몫까지 합쳐 일하고있는데 늦어지면 어찌겠소. 그래도 당신이 적은 힘이나마 바치고 또 바치면 나라의 짐이 그만큼 덜어질것이 아니겠소.》

남편은 자기를 위해 왼심을 쓰는 안해에게 일터에 늦지 말고 나가라고 등을 떠밀어주군한다.

리명옥녀성의 가정뿐이 아니다. 서로 아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기풍이 한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이웃과 동지들을 위한 미덕과 미풍으로 무수히 꽃펴나고있는것이 조국의 현실이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의 친자식이 된 청년들, 부모없는 아이들의 친부모가 되여 혈육의 정을 깡그리 바치고있는 처녀어머니들, 불치의 병으로 하여 걷지 못하는 아이를 수년동안이나 업고다니며 치료를 해주어 끝내는 대지를 밟을수 있도록 해준 고마운 청년들…

남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것을 공민의 의무로,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는 미덕, 미풍의 소유자들의 수를 헤아릴수 없기에 온 나라가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이 되여 사람들 누구나가 삶의 희열과 락관에 넘쳐있는것이 조국의 참모습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식구들사이에 불화가 증대되고 모순이 폭발하며 서로 죽일내기를 하는것이 사회적풍조로 되고있다.

지난해 일본의 후꾸오까현에서는 남편이 자기의 안해를 식칼로 찔러 무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가관은 경찰의 조사과정에 살인자가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내가 한짓이 틀림없다.》고 뻐젓이 뇌까린것이다.

자식들이 자기를 낳아 키워준 부모들을 천대하다 못해 살해하고 부모들이 제가 낳은 자식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패륜패덕의 행위도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아이찌현에서는 20대의 청년이 자기 어머니를 목졸라죽였는가 하면 오사까부의 도요나까시에서는 딸자식이 늙은 어머니의 잔등을 짓밟아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베란다에 내버려두어 죽게 하였다. 군마현의 다까사끼에서 한 녀성이 한살밖에 안되는 딸애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고 하여 아기의 손에 끓는 물을 쏟아부어 화상을 입힌 사건, 오끼나와현에서 39살 난 녀성이 두 아들의 목을 졸라죽인 사건과 같은 학대행위와 살인참극 등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한피줄을 잇고사는 혈육간에도 서로 야수들처럼 죽일내기를 하는 정도이니 남을 위해준다는것은 꿈에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남을 등쳐먹고 빼앗고 죽일내기를 하는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 지난해 12월말에도 히로시마현에서 녀성이 술을 마시고 한 남성의 잔등을 식칼로 찔러죽인 끔찍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계의 경악을 자아내는 일이 벌어졌다.

인간사회에 흘러넘쳐야 할 사랑과 정이 말라버리고 도덕적으로 썩을대로 썩은 이런 사회에서 극도의 인간증오사상과 온갖 범죄현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는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두 사회제도의 판이한 현실, 과연 어느 사회에 래일에 대한 희망과 미래가 있겠는가.

본사기자

피난민사태, 무엇을 시사하는가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불안정과 류혈적인 무장분쟁의 후과로 정든 고향을 등지고 피난의 길에 오르고 있다.

예멘만 놓고보아도 계속되는 무장분쟁의 후과로 피난민들이 늘어나고있다.

지난해 국제이민기구가 밝힌데 의하면 무장충돌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는 마리브주에서 10월까지의 지난 2개월동안 피난길에 오른 민간인들의 수가 4만 5 000여명에 달하였다. 이 주에는 약 140개의 피난민수용시설이 있는데 그곳에 모여든 피난민들의 수는 9월초보다 거의 10배 증가하였다.

한편 벨라루씨와 접하고있는 라뜨비야, 리뜨바, 뽈스까국경지역으로는 서방이 벌린 《반테로전》의 후과로 분쟁과 전란에 시달려온 중동과 북아프리카지역 피난민들이 밀려들었다. 그 수는 2만명정도에 달하였다.

이미 피난민들의 거대한 무덤으로 된 지중해에서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있다.

지난해 11월 국제이민기구는 그해 리비아를 떠나 지중해를 건느던 피난민들중 약 490명이 사망하고 730여명이 행방불명되였다고 밝혔다. 이 기간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된 피난민수만 하여도 무려 2만 8 600여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피난민들이 급격히 몰려드는데 우려를 느낀 유럽나라들은 어떻게 하나 피난민들의 류입을 막기 위해 모지름을 쓰고있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피난민들을 국경밖으로 내쫓기 위해 전기충격기를 사용하고있으며 사람들을 구타하고있다.

피난민들에게 제공되는 처지도 매우 한심한데 수많은 피난민들이 식량, 물 등이 부족한 속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고있다.

살길을 찾아 피난의 길에 올랐지만 이처럼 피난민들에게 닥쳐드는것은 죽음과 고통, 천대와 멸시뿐이다.

뿐만아니라 많은 피난민들이 온갖 차별과 랭대를 받고있으며 인신매매범죄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2016년 리오 데 쟈네이로에서 진행된 올림픽경기대회때 국기대신 올림픽기발을 몸에 두른채 경기장에 입장하였던 수리아녀성인 《피난민수영선수》 유스라 마르디니는 세상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그의 의도는 단순히 피난민들의 불우한 인생살이, 그들이 겪고있는 어려운 생활처지를 보여주자는것이 아니였다. 세상사람들에게 평화의 귀중함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하기에 그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하여 평화를 갈망하는 전 세계 피난민들의 심정을 담아 기자들앞에서 《우리는 평화를 위해 경기를 한다.》고 절절히 말하였다.

하지만 피난민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있으며 피난민수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있다.

피난민사태는 피난민들이 태여난 나라는 있어도 그들을 지켜줄 나라, 그들에게 평화를 안겨줄 나라는 없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유모아

아는 길도 물으며 오다

훈장이 지각생을 꾸짖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니?》

《훈장님이 어제 가르친대로 하다나니…》

《이녀석, 내가 언제 늦게 오라고 했느냐?》

《어제 훈장님이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는 속담을 대주지 않았소이까. 그래서 이곳에 오면서 열번나마 사람들에게 물으며 오다나니…》

《엉?!》

* * *

민족의 향기

군밤향기에 이끌려

아직은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있는 초봄입니다.

하지만 수도 평양의 거리들에서는 군고구마와 함께 군밤향기가 지나가는 길손들의 발걸음을 멈춰세우고있습니다.

며칠전 우리도 그 향기에 이끌려 대동강기슭에 위치하고있는 군밤매대앞에 서게 되였습니다.

《밤이 정말 달구만요.》

《유명한 성천밤인데 여부가 있겠나요?》

군밤을 맛있게 들며 나누는 녀인들의 말소리가 우리의 귀가에 들려왔습니다.

성천밤은 밤알은 크지 않아도 속껍질이 잘 벗겨지며 당분함량이 많은 우수한 품종입니다.

군밤매대에 서있느라니 우리의 눈앞에는 몇해전 이 자리에서 군밤을 맛보며 기뻐하던 한 재미동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내가 사는 나라에도 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선친들이 살던 조국에 올 때마다 꼭꼭 이렇게 특별히 달고 구수한 군밤을 맛보며 고국의 향취를 체감하군 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군밤은 산과일의 하나인 밤을 불에서 구운것입니다.

아다싶이 밤은 참나무과 밤나무속에 속하는 밤나무에 달리는 열매입니다.

밤에는 백미와 맞먹을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당질이 매우 많으며 광물질을 비롯한 영양소가 균형적으로 들어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가 포도와 맞먹을 정도로 많이 들어있을뿐 아니라 껍질이 두터워 아무리 센 불에서 구워도 비타민C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군밤은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좋아하는 산과일가공품입니다.

예로부터 농민들은 가을이 오면 산에 올라 밤을 수확하고는 산기슭에 모여앉아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을 구워먹으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군 하였습니다. 이것을 일명 밤청대라고도 하였습니다. 이런 목가적인 향취가 오늘날에는 도시에도 넘쳐

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도시에서 밤을 저장하고 굽는 방법에 대하여서도 전하고싶어 중구역채과도매소 동안2과일남새상점 책임자 김미영(37살)을 만났습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크지 않은 군밤매대에서만도 거의 10t에 달하는 밤을 구워 인민들에게 봉사한다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해마다 그들은 9월말부터 10월초경에 밤고장인 평안남도 성천군을 비롯하여 여러 생산지역에 나가 알알이 여문 밤을 운반하여옵니다.

밤은 다른 과일과 같이 물기가 빠지면 생과일로 리용할수 없으므로 마르지 않도록 톱밥, 모래, 진흙을 리용하여 보관합니다. 밤보관에 적합한 온도는 0~6℃이며 습도는 60~65%입니다.

밤을 굽는데도 요령이 있습니다.

이곳 판매원인 오성숙은 《우선 생밤을 물에 깨끗이 씻어 물기를 찌운 후 밤알의 밑굽을 칼로 약간 째줍니다. 그것은 밤의 겉껍질이 두꺼운데다 외부에서 열이 가해지면 안이 팽창되면서 터질수 있으므로 미리 공기구멍을 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로에 넣어 센 불에서 15분정도 구워내는데 불조절에 따라 군밤맛이 달라지게 됩니다.》라고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군밤매대에서 풍겨나오는 구수한 향기에 이끌려 매대앞을 그저 지나치지 못하는 손님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며 이곳 봉사자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여나고있습니다.

이렇듯 조국에서는 지난날 산촌에서만 풍기던 군밤향기가 수도는 물론 여러 도시들에서도 가득 풍겨나 인민들에게 류다른 기쁨을 안겨주고있습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옛 문헌에 실린 밤에 대한 자료

군밤매대에서

《빈곤함을 걱정말라》

고려때사람인 함유일은 하급관리로서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 여러번 참가하여 큰 공훈을 세웠다. 그는 무관으로 승진하다가 나중에는 궁궐을 호위하는 벼슬에 등용되였다.

어느날이였다.

왕이 군사들의 무술훈련을 보러 궁궐밖에 나왔다가 큰 상을 걸고 무관들에게 활쏘기 시합을 시키였다.

이 시합에서 함유일이 단연 1등을 하여 상으로 많은 금과 여러필의 비단을 받았다.

거리에 나왔던 그의 자식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는듯이 집으로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전했다.

《어머니, 우리 집안에 경사가 났어요!》

《아니, 경사라니 무슨 경사란 말이냐?》

《아버지가 왕이 참가하는 무술시합에서 1등을 해서 수많은 금과 비단을 받았대요.》

《그게 정말이냐?》

《지금 온 거리가 그 이야기로 부쩍 끓고있어요.》

《너희들이 잘못 듣지 않았니?》

《아니예요. 분명 아버지이름을 부르며 말했어요. 그리구 우리들을 보구서 너희들이 누구의 아들딸이 아닌가 하면서 얼마나 좋겠는가구 했어요.》

《또 어떤 할머니는 너희들은 인젠 세상에 부러운게 없겠다, 그 금에 비단이면 몇대를 두고 놀고먹어도 못다 쓸것이라고 하면서 부러워까지 했는데요 뭐.》

오누이가 번갈아 거리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하자 함유일의 안해도 어느 정도 믿음이 갔다.

오누이들은 아버지가 받은 상으로 아버지의 옷도 짓고 집안의 재산도 늘구자고 말하였다.

해가 지고 저녁노을이 비낄무렵 함유일이 대문으로 들어섰다.

《아버님이 오신다!》

뜨락을 거두던 아들이 소리치자 온 식구가 달려나왔다.

온 집안식구들은 집안의 경사라고 그를 축하해주었다.

그러자 함유일은 자기도 일생에 그런 큰 상을 받긴 처음이라고 말하였다.

가족들은 그에게 그것들을 언제 집에 가져오겠는가고 물었다.

함유일은 그것은 집에 가져오는것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가족들은 모두 의아해하였다.

함유일은 말했다.

《허, 그건 내가 받았어도 가지면 안되는 거란다. 나는 그 금과 비단을 팔아 병쟁기들을 마련할 생각이다. 그리고 그것을 군사들에게 보내주어 외래침략자들이 이 땅에 얼씬도 못하게 하려고 한다.》

《? …》

그 말에 식구들은 말을 못하였다.

갑자기 식구들의 기색이 변하자 함유일이 물었다.

《아니, 왜들 이러느냐? 아버지가 한 처사가 마땅치 않아 그러는 모양이구나.》

그의 안해가 울음섞인 말로 대답하였다.

《너무하외다. 아이들이 그것으로 살림밑천이라도 장만하자구 마음쓰는데 당신은 어째면 집안일에 아이들보다 못하시우?》

《허허허… 그래서였구만.》

함유일은 식구들을 둘러보고나서 말을 이었다.

《여보, 당신도 아다싶이 나는 원래 빈한한 가정에서 태여나 여직 누구의 방조를 받지 않고 살아오지 않았소. 다만 근면하구 정직하게 살면서 애국애민의 뜻만 잃지 않는다면 어찌 빈곤함이 걱정되겠소. 내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주지 못할 걱정보다 도 이런 뜻을 심어주지 못할가봐 걱정될뿐이요.》

* * *

통 빨 래

어느날 밤이였다.

정수동은 성안에 볼일이 있어 나다니다가 통행금지시간이 다되여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자 친구인 김서방의 집에서 하루밤 묵어가리라 생각하고 찾아들어갔다.

김서방은 정수동을 반갑게 맞아들이였으나 불안해하는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자네 기색이 좋지 않군. 어디 아픈가?》

《어디 아파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그럼 왜 안절부절 못하나?》

《사실 오늘밤이 우리 큰아버지의 제사를 치르는 밤일세.》

《그럼 왜 아직 안가고있나?》

《글쎄, 제사날을 돌아가신 날로 여기여왔는데 이자 마실왔던 웃집형님하고 말을 나누다보니 제사는 돌아가기 전날에 치른다는게 아닌가.》

《이제라도 알았으면 제꺽 가야지!》

《벌써 통행금지시간이 지났으니 어쩌면 좋겠나? 순라군들에게 붙들리면 제사는 고사하고 산 사람이 경칠게 아닌가.》

《별걱정을 다하누만. 맞다들면 내가 처리할테니 어서 가세.》

정수동의 부추김에 용기를 얻은 김서방은 제사집에 가지고갈 음식을 싸가지고 나섰다.

그들이 으스름한 달빛이 비치는 성안의 골목길을 돌아 토성랑쪽으로 나가고있을 때였다.

그들이 골목길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만 구석구석을 돌며 순찰하던 순라군들과 좁은 골목길에서 맞다들게 되였다.

김서방을 옆에 있는 모퉁이에 숨긴 정수동은 오던 길을 되돌아 고요하던 골목길이 소란스럽도록 요란한 발자국소리를 내면서 줄행랑을 놓았다.

대여섯명이나 되는 순라군들이 와당탕거리며 정수동을 정신없이 쫓아갔다.

순라군들이 자기 행적을 잃고 이 골목 저 골목으로 헤맬 때 정수동은 길결에 솟아있는 어느 큰 부자집 담장우로 훌쩍 올라가서는 넙적 엎디였다.

순라군들은 정수동이가 엎드린 담장아래에 와서 분명 이쪽으로 왔는데 어디로 사라졌는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수군거리였다.

그러던중 한 순라군이 《저게 뭐야?》 하고 담장우에 엎디여있는 정수동을 가리켰다.

《어디 말인가?》

《저 담장우에 흰것 말일세.》

한 순라군이 륙모방망이로 정수동을 건드렸다.

《아니, 왜 이러시우?》

정수동은 도리여 제편에서 큰소리로 역정을 냈다.

《넌 왜 여기 엎디여있느냐? 일어나지 못할가.》

《이건 빨래오이다.》

《뭐 빨래라구? 하하! 빨래가 어찌 말을 하느냐?》

《통빨래요.》

《통빨래?》

《통빨래도 모르시우?! 갈아입을 옷이 없어 입은채로 빨아서 그대로 말리우는중이란 말이요.》

《그럼 아무데나 마른 곳에 엎딜것이지 그렇게 먼 예까지 왔느냐?》

《여보시우, 여기 성안에서 이 밤중에 그래도 따스하게 열을 내여 통빨래를 말릴만한 곳이란 이런 검은 기와장을 얹은 담장밖에 어디 또 있소? 더 좋은 곳이 있으면 대주구려. 난 옷이 말라야 래일 아침 밭으로 일하러 나가겠기에 한초가 새롭수다.》

《…?》

이렇게 순라군들을 슬쩍 따돌린 정수동은 다시 길을 되돌려 김서방을 쫓아가서 그의 큰아버지의 제사에 참가하였다.

* * *

자강도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강계아사

동헌추녀

동헌천정

동헌앞부분

동헌후면

동헌내부

강계아사는 조선봉건왕조시기 강계부의 관청건물이다.

강계아사는 강계부의 최고관료인 강계부사가 일을 보던 곳으로서 처음에는 많은 건물들로 이루어져있었으나 지금은 동헌과 내헌, 륙모정이 남아있다.

동헌은 부사가 일상 공무를 집행하던 건물이다.

정면은 8간(21.8m)이고 측면은 4간(9.8m)이며 건평이 213.6㎡이다.

내헌은 부사가 생활하던 곳인데 정면 6간(20.05m), 측면 2간(4.6m)이다.

륙모정은 관리와 군사들이 활쏘기련습을 하던 곳이다.

강계아사는 조선봉건왕조시기 지방관청건물의 구성과 우리 선조들의 건축술을 보여주는 귀중한 력사유적이다.

*　　*　　*

내헌

륙모정

www.korean-books.com.kp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